

2006學年度

碩士學位(M. Div) 請求論文

J. Calvin의 인간론에 관한 연구

- 『기독교 강요』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II 권을 중심으로-

總神大學校 神學大學院

神學科 組織神學 專攻

金 順 正

2006學年度

碩士學位(M. Div) 請求論文

J. Calvin의 인간론에 관한 연구

－ 『기독교 강요』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II 권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최 홍 석

이 논문을 신학석사(M. Div)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 전공

김 순 정

김순정의 신학석사(M. Div) 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2006. 11월

總神大學校 神學大學院

감사의 글

하나님께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수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하게 하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논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해 가는 이 시대에 칼빈주의 개혁신학의 뿌리가 되는 칼빈이 성경에 근거해 제시한 인간론을 다시금 정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목회자로 서원하며 기도해 주셨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지금까지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언제나 든든히 내 옆에 있어준 동생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논문을 쓰도록 격려해 주시며 자상하게 잘 지도해주신 최홍석 교수님, 각주 하나까지도 꼼꼼히 세심하게 지적해주신 김길성, 김상훈 교수님과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칼빈주의 개혁신학의 체계들을 가르쳐주신 여러 교수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시절 신앙을 지도해주시고 지금까지 기도해주시는 제주한림교회 박영근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용기를 주신 나주남평교회 소재열 목사님, 영원한 친구이자 동역자인 송요한, 홍현준 목사님, 김희성 강도사님, 논문을 교정해준 권오훈 전도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 사역의 훈련을 도와주시고 충고와 사랑을 베풀어주신 초대교회 김승윤 목사님과 교우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나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처남들과 처형,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배필 김현정에게 감사드립니다.

2006년 11월

김순정

목 차

감 사 의 글	1
목 차	2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 목적	3
제 3 절 연구 질문	5
제 4 절 연구 목표	6
제 5 절 연구 방법론	6
제 6 절 용어정의	7
제 7 절 한계	10
제 2 장 칼빈의 인간론에 영향을 준 역사적 배경	11
제 1 절 교부시대: 로마의 클레멘트에서 어거스틴까지	11
제 2 절 중세교회 시대	16
1. 대 그레고리(Gregory The Great; 540-604)	16
2. 스콜라(Schola) 신학자들: 안셀름, 토마스, 스코투스 와 옥캄	17
3. 로마 가톨릭 교회	21
(1) 창조 당시	22
(2) 타락 후	22
(3)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 후	23
제 3 절 종교개혁 시대	24
1. 개혁자들: 루터, 츠빙글리, 칼빈	24
(1) 루터(M. Luther; 1483-1546)	24
(2) 츠빙글리(U. Zwingli; 1484-1531)	27
(3) 칼빈(J. Calvin; 1509-1564)	28
제 4 절 요약 및 소결론	31

제 3 장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인간론	34
제 1 절 창조 시 인간	35
1. 순결한 인간성	35
2. 인간 영혼의 기능	36
(1) 불멸적이고 창조된 실재	37
(2) 오성과 의지	38
3. 하나님의 형상	39
(1) 영혼과 육체의 관계=전인성	40
(2) 형상과 모양	42
(3)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	43
4. 의지의 자유	44
제 2 절 타락 후 인간	46
1. 아담의 범죄로 인한 원상태의 부패: 원죄론(原罪論)	46
(1) 자기 인식에 대한 왜곡현상	46
1) 자기 왜곡	47
2) 망상적 자아도취	47
(2) 전 인류의 파멸	49
(3) 본성의 부패인 원죄	52
2. 노예의 신분	54
(1) 인간 의지의 자유	54
(2) 자유의지 옹호자들에 대한 칼빈의 답변	56
3. 부패한 인간 본성에서의 최악된 행동들	58
4. 그리스도 안에서만 형상 회복=구속	61
제 3 절 구속 받은 후 인간	63
1. 구속받은 인간답게 사는 생활	63
2. 내세에 대해 명상하는 인간	65
3.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67
(1)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68
(2) 양심의 자유	68

(3) 무해 무익한 것들로부터의 자유	69
(4) 자유와 건덕	69
(5) 양심의 자유와 국가	70
4. 기도생활을 하는 인간	72
(1) 기도의 본질인 믿음	73
(2) 기도해야 할 이유	73
(3) 기도를 통한 하나님 경외	74
(4) 기도를 통한 회개	75
(5) 기도를 통해 겸손하게 용서를 구함	75
(6) 기도를 통해 확신 있는 소망을 소유	76
(7) 중보자 그리스도	76
제 4 절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간	77
1.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인간	77
(1) 선택된 자들=그리스도인	78
(2) 유기된 자들=불신자들	78
2.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인간	79
(1) 부활의 소망	79
(2) 하나님과의 연합을 사모하라	80
(3) 몸의 부활	80
(4) 현세에 입고 있는 몸으로 부활	81
(5) 불신자의 부활	82
제 5 절 요약 및 소결론	83
제 4 장 결론	86
제 1 절 요약	86
제 2 절 연구결과	88
제 3 절 제언	91
참고문헌	94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칼빈이 제시한 성경적 인간은 무엇인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서울대 황우석 박사 연구진이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여 복제물(송아지와 개)을 만들어 내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물론 이것이 거짓임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이같이 현대에 인간의 생명이나 삶에 대한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인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생명에 대한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인 연구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에 근거한 칼빈이 제시하는 인간관을 바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계시 연구와 그 속에서 발견되어진 인간에 대한 시각들을 바르게 파악하고 계승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간관이 가진 문제점들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 비평하는 일은 이 시대의 교회에 주어진 귀한 사명이다.

미국은 줄기 세포의 배양문제에 대하여 양분된 여론을 가지고 있다. 보수 세력은 부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줄기 세포의 배양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 세력은 부시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줄기 세포의 배양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은 수정된 세포 역시 생명체이고 인간 생명이기에 줄기 세포의 배양을 거부하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수정된 난자가 줄기 세포로 성장하기 전에도 인간생명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칼빈주의 개혁신학은 사 42:5와 슥 12:1을¹⁾ 근거로 수정이 되면 사람의 생명이 시

1) 사 42:5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작된다는 영혼창조설을 믿는다. 영혼이 조성되었으므로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태한 핵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 안에 창조되어 조성된 인간의 영혼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개혁신학은 인간의 영혼이 창조되는 시점을 수태 시로 본다.²⁾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이의 생명을 죽일 수 없다. 이것은 살인이기 때문이다. 사회생물학에서는 환원주의적 유전자 결정론을 제시한다. 모성애, 우정이나 사랑, 도덕과 법등은 모두 유전자의 작용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만 조작하면 생물학의 영역의 문제들 뿐 아니라 사회와 윤리적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³⁾

또한 유물주의적 인간론에 근거하여 현대 과학은 인간을 생명체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대상, 다른 동물과 같은 종류의 실험의 도구로 여기는 인상을 준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명예와 부에 도움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다. 장기 매매, 낙태, 성매매, 인신 매매 등이 바로 이러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본질을 중시 여기지 않는 시대에 교회 신자들은 더욱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교회 밖에서 피부로 겪는 세계는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피조물이라고 강조한다.

이 사이에서 신자들은 이중적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다. 교회에서는 존엄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서는 세상 과학에 근거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칼빈의 인간론을 살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누구보다도 칼빈은 성경에 근거하여 인간론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은 오직 성경이 제시하는 거울 속에서 스스로를 묵상함으로써 자신의 상황과 스스로에 대한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⁴⁾

칼빈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소멸되거나 파괴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아주 부패하였기 때문에 남은 것은 다만 무섭도록 추한 것뿐⁵⁾이라고 했다. 이러한 전적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חורו)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속 12:1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와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מרא חור רציו) 자가 가라사대.”

2) 서철원, “줄기세포 배양은 성경적으로 허용될 일인가,” 『신학지남』, 제284호 (2005년 가을호): 6.

3) 이상원, 『Francis Schaeffer의 기독교 세계관과 윤리』 (서울: 살림, 2003), 122-123.

4) F. Wendel, 『칼빈의 신학서론』,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95), 201.

5)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vol. 1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2000), 189. 이후로 J.

부패관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 바른 인간관을 가질 수 있다.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 또는 재창조되어야 하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칼빈의 『기독교강요』 I-III에 나타난 인간관을 살펴보고 칼빈이 성경을 통해 발견한 인간관이 어떠한 것인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 인간관을 바탕으로 오늘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인간에 대해 교육하고 유물론적 인간관에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이 서 있는 개혁신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칼빈의 사상 속에 정리된 인간론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칼빈의 인간론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줄 것이다.

제 2 절 연구 목적

자연주의자나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본질은 자연의 일부로 동물에 불과하다고 한다. 동물이기는 하지만 만물의 영장으로 진화론상 최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본질을 분석하면 인간은 역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의 일부일 뿐 살과 뼈를 제외하고는 남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옥스퍼드의 라일(Gilbert Ryle)은 그의 저서 『마음의 개념』(Concept of Mind)에서 인간은 육체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데카르트 등이 인간은 육체와 육체로부터 구분되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이론을 범주상의 과오라고 역설했다. 그는 기계에 불과한 인간의 육체에 영혼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기계 속에 혼이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라고 하면서 마음이나 정신, 영혼이 육체와 구분되는 실체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과오⁶⁾라 했다.

Calvin, *Inst.*,로 표기함.

6) 김호식, 『기독교 철학 변증론』 (서울: CLC, 2001), 341.

기계론적 인간관을 주장한 데카르트⁷⁾는 인간을 비물질적 마음과 물질적 신체로 구분하였다. 근대로 오면서 그의 사상을 이어 『인간기계론』이란 책을 쓴 인물은 라 메트리이다.⁸⁾ 그는 인간이 복잡한 기계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과 동물을 철저히 해부학적으로 비교하였다.

헵켈이란 인물도 인간은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주장했다.⁹⁾ 이렇게 유물론자들은 인간을 물질로 구성된 미립자들의 집합체라고 보고 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가장 진화된 포유류의 한 종류로 본다. 많은 유인원 화석들이 인간의 진화를 지지한다고 한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 등에서 발견된 400여 만 년 전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200여 만 년 전에 살았다는 호모 해빌리스, 160만 년 전에 살았다는 호모 에렉투스, 50만 년 전에 살았다는 호모 사피엔스, 10만 년 전에 살았다는 네안데르탈인, 3만 년 전에 살았다는 크로마뇽인들의 진화를 거쳐 오늘 현대인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한 인간과 동물들의 유전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서 인간의 진화를 주장한다.

이러한 유물론적 인간관과 진화론적 인간관을 토대로 하여 발전하는 과학은 인간을 물질의 한 종류 혹은 동물의 한 종류로 본다. 그래서 인간의 신체나 생명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실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런 사고의 틀 속에서 배아복제라는 큰 문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칼빈이 주장한 바와 같은 하나님은 인간을 순결하게 창조하셨다.¹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은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는 아담이 부여받은 완전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명료한 지성과 이성, 복종하는 지성, 적절히 통제된 감성, 창조주가 부여한 모든 탁월하고 찬탄할 만한 재능들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는 정신과 마음과 혼과 그 능력이나 육체의 모든 부분 가운데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인간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까지도 이러한 인간 이해를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중생한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

7) Rene Descartes(1596-1650)는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이다.

8) Julian Offray de Mettrie(1709-1751)은 프랑스의 철학자이다.

9) Ernst Haeckel은 독일의 생물학자이다.

10) J. Calvin, *Inst.*, I.15.1.

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칼빈이 제시하는 성경적 인간관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일은 중요하다.

교회가 바른 인간관을 인식하고 교육할 때에 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세상의 비윤리적 인간 이해와 비성경적 인간 이해의 틀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더욱더 신실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 안에서 성장하고 성화되어 갈 것이다. 이 논문이 추구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제 3 절 연구 질문

1990년도를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¹¹⁾고 말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이 멈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거나 후퇴되지 않는다. 전진만 있을 뿐이고 발전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의 시각은 정작 보아야 할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치중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들에게 영적 부분과 질적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신앙과 실제의 삶이 다르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함께 중요하게 나타난다.

칼빈의 인간론을 바르게 정립하여 교육할 때에 성도들은 자신에 대해 바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고 그 분 앞에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백성으로 기억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칼빈의 인간관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인간관

11) 유재원, “목회자 양성과 총신의 후원 대책의 필요성,” 『신학지남』, 제275호 (2003년 여름호): 4.

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칼빈의 인간관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 4 절 연구 목표

해마다 수능 시험이 지나고 나면 언론에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이 보도된다. 시험을 잘 보지 못하여 자살한 이야기들이 그것이다. 시험 점수 하나가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가? 물론 1점 차이로 명문(?)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낙방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명문 대학의 졸업장이나 수능 시험의 1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 즉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한다.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 시에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가장 귀한 것이 된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한다.¹²⁾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라고 말한다.¹³⁾

본 논문은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성경적인 인간관을 칼빈의 시각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

제 5 절 연구 방법론

12) 창 1:26, 27; 9:6, 약 3:9.

13) 고전 11:7, 15:49.

본 논문은 방법론에 있어서 역사적, 서술적으로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인간론을 발견하고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칼빈이 제시한 인간론에 대해 평가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 교회 안에서 칼빈의 인간론을 토대로 하여 바른 인간론을 교육하고 제시하려는 것이다.

제 6 절 용어정의

본 논문에서 사용된 인명, 지명, 용어 등의 외래어는 교육부 제정 외래어표기 원칙, 국립국어연구원의 외래어심의 자료, 교육부의 편수자료, 외래어 사전, 철학대사전, 동아새국어사전 등을 근거로 삼았으며 부득이 한 경우 이미 굳어진지 오래된 외래어는 그 관용을 존중히 하여 표기하였다.

존 칼빈(John Calvin:1509-1564)

(인명)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 용례는 따로 정한다는 외래어 표기세칙에 따라 장 칼뱅(프랑스어), 존 켈빈(영어)식 표현을 쓰지 않았다. 따라서 ‘칼빈’ 이나 ‘칼빈주의’ 또는 ‘칼비니즘’ 이라 표기했다. 그러나 교육부 편수자료나 세계 인명사전, 백과사전에는 표제어가 ‘장 칼뱅’ 으로 ‘칼뱅이즘’ 또는 ‘칼뱅주의’ 로 올라 있음을 밝힌다.¹⁴⁾

형상

(용어)형상(形像)은 명사로 ①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②마음과 감각에 의하여

14) 『기독교대백과사전』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4).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표현 또는 그런 형태로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신학적 성경적 ‘형상’ (Image, Figure)은 히브리어로 첼렘(צלם), 헬라어로 에이콘(εἰκὼν)이라 불린다. 성경의 용법은 일반적 의미로 ‘외형’을 말하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imago Dei*, 영어-*Image of God*)으로 표현된다. LXX(70인경)에서는 히브리어 단어 첼렘(צלם)을 헬라어 에이콘(εἰκὼν)이라 기록하고 있다. 골 3:10, 고후 4:4, 골 1:15, 롬 8:29, 고후 3:18등이 이를 표현해주고 있다. 본 논문은 성경적인 형상의 의미 즉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로 사용했다.¹⁵⁾

스콜라 신학(철학)

(철학)중세의 기독교교회나 수도원에 소속된 학교(schola)에서 수도사들이 공부했던 학교 철학의 의미, 주제는 신앙의 근거로서 가톨릭의 신학상의 교의를 이론적 매개를 통해 입증하려 한 것인데 결국 ‘신학의 시녀’로서 교회의 공인의 교의를 합리화 하고 옹호하는 철학이다. 대강 3개의 시기로 나뉘지는데 플라톤, 신플라톤과의 영향에 입각한 초기(9-13c),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근거로 하는 중기(14-15c), 가톨릭과 개혁신학이 대립하는 후기(15-16c)이다. 중세의 스콜라 신학에서 두드러진 대립, 논쟁은 ‘보편 논쟁’이라고 불리는데 이 논쟁의 한편을 이루는 유명론은 유물론의 중세적 표현이다.¹⁶⁾

어거스틴

(인명) 어거스틴(Augustinus, Augustine; 354-430)은 교부철학과 신플라톤학과의 철학을 종합하여 가톨릭 교회의 교의에 이론적인 기초를 다졌다. 중세의 기독교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지금도 가톨릭과 개신교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북아프리카의 누미데아 출신이다. 자서전인 『고백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사상을 편력한 후 386년에 가톨릭에 정착했다. 후에 히포의 감독으로서 일생을 마쳤다.¹⁷⁾ 본 논문에서는 이 이름의 표기를 영어식으로 하여 ‘어거스틴’을 따를 것이다.

15) 박양조, 『성경성구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95)과 『디렉스바이블』, 2000.

16) 『철학대사전』 (서울: 한국이데아, 1996).

17) 『철학대사전』.

로마 가톨릭 교회(Roman Catholic Church)

(용어)로마 가톨릭 교회는 (영)Catholic (독)katholik (프)catholique (라)catholicas 로 불린다. 일반적, 보편적, 공적이라는 뜻이다. 그리스 고전 및 초대 기독교 저술가등이 사용했다. 그러나 안티오키아의 이그나티오스가 사용한 이래 이 말은 이단 또는 이교한 종파에 대해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신학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 세계에 보급되고 그 보급된 교회는 일정하고 통일되어야 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¹⁸⁾ 현대에는 중세의 서로마 교회를 지칭했던 것으로 사용되며,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천주교회를 지칭한다. 여기서는 영어식 발음을 표기로 하여 ‘가톨릭’으로 사용할 것이다.

오성과 의지

(용어)오성(悟性)은 사물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으로 칸트(Kant)는 감성과 더불어 인식 능력에 있어서의 작용의 하나로 보았다. 의지(意志)는 ① ‘생각, 뜻’이란 목적이 뚜렷한 내용들을 의미한다. ②사물을 깊이 생각하고 선택, 판단하여 실행하려는 적극적인 마음 가짐이다. 지식이나 감정에 대립되는 정신작용이다. ③철학에서는 도덕적 행위의 근원이 되는 힘으로 본다.¹⁹⁾

원죄(peccatum originale)

(용어)원죄는 라틴어로 peccatum originale라 하고, 영어로 original sin이라 한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의 교설의 하나로 인류의 원죄인 아담이 신으로부터 부여된 자유를 남용해 신에 대해 죄를 범한 결과 그 자손인 인류에도 죄를 짊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에 의해 전 인류는 신으로부터 이반되고 그 때문에 인류는 죄악의 경향을 지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원죄설은 어거스틴에 의해 확립되었는데 그는 원죄를 짊어진 인간에게는 악을 행하는 의지만 있지만 선은 오직 신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으며 신의 은총 없이는 단 하나의 선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²⁰⁾

18) 『철학대사전』.

19) 『동아세계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5).

20) 『철학대사전』.

진화론(進化論)

(용어)진화론은 모든 생물이 원시적인 종류의 생물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다윈의 학설이다. 그래서 이를 다윈니즘(Darwinis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²¹⁾

유물론(唯物論)

(용어)영혼이나 정신 따위의 실재를 부정하고, 우주 만물의 궁극적 실재는 물질 뿐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비롯되어 마르크스에 이르는 무신론의 근거가 된다.²²⁾

제 7 절 한계

본 연구는 포스트모던 시대 흐름 속에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성경적 칼빈주의적 인간론에 대한 연구이다. 그래서 세속적인 인간론에 대한 깊은 내용과 제시는 다소 축소하였다. 또한 칼빈의 저서인 『기독교강요』²³⁾를 중심으로 그의 인간론을 살펴졌다.

그리고 국내에 번역된 칼빈의 주석들도 참고하였다. 본 연구는 칼빈의 『기독교강요』 I-III권의 인간론을 다루는 부분을 중심으로 함을 밝혀둔다.

21) 『동아새국어사전』.

22) 『동아새국어사전』.

23) 본 논문이 채택한 J. Calvin의 『기독교강요』는 한글판은 김종흡·신복윤·이종성·한철하 박사가 번역한 생명의말씀사의 1997년도 판을 중심으로 하고, 영역판인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2 vol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2000)판을 참고하였다.

제 2 장 칼빈의 인간론에 영향을 준 역사적 배경

본 2 장에서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인간론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영향을 준 사상들을 고찰해 보려 한다.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이 정리한 인간론에 영향을 준 배경은 그의 사상을 정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그의 인간론에 영향을 준 계보적인 인물들과 동시에 반대쪽에 서 있던 이들의 사상을 간략하게 다루어 볼 것이다.

제 1 절 교부시대: 로마의 클레멘트에서 어거스틴까지

제 1 절에서는 초대교회 시대에 등장한 인간 이해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교부시대를 중심으로 하여 로마의 클레멘트와 그리스의 인간론, 서방의 인간론,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인간론이 어떻게 칼빈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먼저 로마의 클레멘트(Clement)²⁴⁾는 인간을 육체와 영이라는 이원론적 구조로 보았다. 그러나 당시의 플라톤주의자들처럼 둘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상호 연합적이고, 조화적이며, 불가분적으로 이해했다. 그는 내세론에서도 육체와 영을 합일적인 관계로 이해했다.²⁵⁾ 영지주의나 플라톤주의처럼 이원론으로 보지 않고 영과 육이 상호

24) 그는 1c말의 로마의 유명한 장로였고, 사도 요한이 밧모섬 유배 시 로마교회의 감독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빌4:3에 등장하는 인물로 추정되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클레멘트 제2서신』이 있다. 도미티안 황제 당시에 순교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적이고 조화적이며 불가분적이라는 점은 칼빈의 이해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스의 교부들은 주요 관심이 신학과 기독교론에 있었다. 그래서 인간론에 대한 문제에는 부분적으로 손을 대기는 했지만 가볍게 넘겼다. 그들의 죄와 은혜에 대한 사상에는 확실한 이원론이 내포되어 있었다.²⁶⁾ 초기에 악의 물질적 필연성을 강조하고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영지주의를 반대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은 윤리적 완전함이 아니라 성질이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담은 범죄할 수 있었고 범죄하였다. 이 물질적인 부패는 인류 안에 나날이 번식하여 가지만 그 부패 자체가 죄는 아니었다. 그래서 인류로 죄책을 입게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들은 결국 원죄를 부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담과 인류의 연대성을 인정하고 물질적인 관련을 시인하였다.

이레니우스(Irenaeus; 130-202)²⁷⁾는 문자 그대로 성경주의적 신학자였다. 창1:26의 하나님의 형상(image)과 모양(likeness)의 개념을 동일한 하나의 대상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이었다.²⁸⁾ 창조 당시에 인간은 어린아이와 같아 아직 완전하게 발달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계속하여 성장하도록 창조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 더욱더 성장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결국 인간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구원한다고 했다. 이레니우스는 형상과 모양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다. 하나님이 은혜로 모양을 덧붙여주신다는 것이다.²⁹⁾ 인간의 순종과 상관없이 즉 오리겐이 주장한 보상의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덧붙여진 은사의 개념으로 몰고 가기에 후에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의 덧붙여진 은사(초자연적 은사) 개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많은 부분에서 칼빈과 같지 않지만 영혼과 육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동일한 점이라 평가할 수 있다.

25) 박용규, 『초대교회사』 (서울: 총신대출판부, 2001), 122.

26) L. Berkhof, 『기독교 교리사』, 김진홍·김정덕 공역 (서울: 세종문화사, 1995), 137.

27) 이레니우스는 2c말에 살았던 교부로 헬라교부 신학자이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에 반박자로 등장하였고 헬라와 라틴 신학의 교량 역할을 했다. 소아시아 출신의 신학자로 폴리갑의 제자였으며, 온유하고 준수하고 박학자로 헬라고전과 신구약에 정통하였다. 리용에서 순교를 당하였다.

28) B. Hagglund, 『신학사』, 박희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6), 62.

29) 최홍석, 『인간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5), 97의 각주119를 참고하라.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오리겐(Origenes)³⁰⁾이다. 오리겐은 영혼의 선재설을 주장했다.³¹⁾ 인간의 영혼이 육체보다 먼저 만들어져 있다가 육체가 만들어질 때에 붙어넣어진다는 식의 주장이다. 또한 신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도 재밋는 표현을 했다. 그는 신자들의 모든 행위와 말, 사상은 독생하신 말씀에 의해 그의 형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방한다는 것이다.³²⁾ 그는 이 외에도 자유의지와 영혼불멸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나님께서 창1:26의 계획과 의도에서 인간을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려 하셨다. 그러나 실제 창조에서 실행은 창1:27처럼 형상만 등장한다. 이렇게 형상과 모양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형상은 이성적 존재로 보고, 이 이성을 가지고 순종(행위)하면 모양(보상)을 받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³³⁾ 이것은 후에 동방교회의 인간론에 영향을 준다. 오리겐의 이런 사상은 플라톤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났지만, 후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인간론에 영향을 주었다. 물론 칼빈이 그토록 싫어하고 공격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인간론의 토대를 마련해준 셈이 되고 말았다.

서방의 교부인 터툴리안(Tertullianus)³⁴⁾은 인간의 영혼은 유전된다고 하는 영혼유전설을 주장한다.³⁵⁾ 그래서 죄까지도 유전 받는다는 것이다. 부모의 영혼이 유전되기에 죄도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것이다. 즉 죄가 육체 안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유전설과 실재설³⁶⁾을 결부시켰다. 더 나아가 그는 갓난아이는 죄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새 율법을 인간이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30) 오리겐은 185-254년까지 살았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며, 클레멘트의 제자였다. 로마, 아라비아, 팔레스틴, 그리스로 전도여행을 했고 가이사랴에서 신학교 교장이 되었다. 데키우스 박해시 투옥되어 신앙포기를 강요받으며 고문을 당했다. 이때 고문의 후유증으로 몇 년 후 사망했다.

31) 심창섭·박상봉, 『교회사가이드』 (서울: 아가페, 1999), 46.

32) G. W. Bromiley, 『역사신학』, 88.

33) 최홍석, 『인간론』, 97.

34) 터툴리안은 160-220년까지 살았으며, 160년에 카르타고에서 출생하여 40세에 신자가 되었다. 수사학과 법률을 공부한 최초의 서방 신학자이다. 말년에 몬타누스파에 가입하여 자신의 분파를 조직하였다. ‘삼위일체, 한 본질, 실재, 능력’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35) 심창섭·박상봉, 『교회사가이드』, 48.

36) 실재설이란 하나님께서 육체와 영혼을 가진 보편적 인간성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생식에 의해 개인화 하였다는 이론이다.

고 한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아가는데 능력을 얻게 되고 인간은 공로를 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³⁷⁾ 이렇게 신인협동구원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인간의 능력을 최소한 제한하기는 했어도 협력적인 구원론(중생론)의 색을 보인 것이다. 그에게 원죄는 신인불화론(神人不和論)으로 해명한다.³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어김으로 불화가 생기고 그 불화가 바로 원죄라는 것이다.

키프리안(Cyprianus)과 힐래리(Hilary) 그리고 암브로스(Ambrose)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 하였고, 그러므로 죄 가운데서 출생하였다고 가르쳤다. 동시에 인간의 의지의 전적 부패를 거부하여 협력적 중생론(구원론)에 이르게 되었다.³⁹⁾

서방은 죄의 유전성을 강조하여 원죄설을 강조한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물론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협력 구원에 이른다 고 주장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했지만 죄의 전가론은 대단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었다. 특히 원죄설에 대한 강조는 어거스틴과 칼빈의 원죄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

칼빈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인물인 어거스틴(Augustinus)⁴⁰⁾은 크게 세 가지 인간에 대한 이론을 주장한다. 첫째는 아담의 원죄론이고, 둘째는 인간의 의지의 부패와 무능력이다. 셋째는 영혼의 유전설이다.⁴¹⁾

첫째, 아담의 원죄론에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의 가변적 의지의 일탈이다. 원초적 배교, 최초 선의 결여는 불온한 일들에 대한 욕망, 추방, 원죄, 저주를 통하여 온 인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다. 이 아담의 원죄는 유아들까지도 죽게 한다. “유아들은 오직 원죄에 대해서만 죽는다.”⁴²⁾ 그리고 성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는 것이다. 원죄는 불순종, 거만과 같은 많은 죄들로 구성된다. 유아들은 이런 죄 가운데서 출생하며 이들도 죄사함을 받는다. 첫 아담의 범

37) B. Hagglund, 『신학사』, 76.

38) 심창섭, 박상봉, 『교회사가이드』, 48.

39) L. Berkhof, 『기독교 교리사』, 139.

40) 어거스틴(354-430)은 북아프리카 타카스테에서 이교도 아버지와 기독교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했다. 8년간이나 마니교의 이원론을 신봉하였고, 387년 암부로스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 회심하였다. 395년 히포의 감독이 되었고, 430년 76세에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죽게 된다. 저서는 『독백』, 『삼위일체론』, 『하나님의 도성』, 『참회록』, 『명상록』 등이 있다.

41) 심창섭·박상봉, 『교회사가이드』, 89.

42) G. W. Bromiley, 『역사신학』, 서원모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169.

죄로 인해 그의 후손들이 다 죄 아래 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둘째, 인간 의지의 부패와 무능력을 주장한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의지는 선행을 하거나 구원을 선택할 수 없게” 43) 타락해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지를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은혜는 인간이 의지하기 전에 인간에 미리 자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심으로 인간의 의지를 도와주신다.

셋째, 영혼의 유전설이다. 어거스틴은 창조설과 유전설 사이에서 갈등하였다. 그러나 유전설의 입장에 있게 된다. 창조설은 만약에 영혼이 원래 부패 성향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악의 창시자가 되신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유전설을 주장한다. 그래서 “창조론자들이 이와 같은 함정을 피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 시킨다.44)

이 어거스틴의 인간론과 전반에 걸친 신학 사상은 칼빈의 신학의 토대가 되었다.

펠라기우스(Pelagius)45)는 어거스틴과의 논쟁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드러냈다. 그는 원죄에 대해 아담의 죄는 자신에게만 국한되고 인류에게는 무관하다고 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는 원죄론을 부정해 버린다. 아담은 처음부터 죽을 사람으로 출생하였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범죄로 죽었다고 했지만 그는 아담이 창조 시부터 죽을 것으로 출생하였다고 한다. 인간은 죽을 존재로 애초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죽는다고 했다. 죽음은 아담의 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원래 죽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유아는 어떠한가? 유아는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태로 원죄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세례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46)

인간과 관련하여 예정론에 가면 인간은 자유 의지적이며 가항적이라고 했다. 반면에 어거스틴은 예정론적 절대 불가항력적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47) 결국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공로와 의지

43) G. W. Bromiley, 『역사신학』, 168.

44) L. Berkhof, 『조직신학(상하)』. 권수경·이상원 공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410.

45) 펠라기우스(360-420)는 영국의 수도사로 성품과 품행이 단정하여 많은 존경을 받았다. 헬라적 신학으로 어거스틴 사상과 처음부터 달랐다. 416년에 카르타고 지방대회부터 매년 정죄 당했고, 431년 3차 에베소 회의에서 정죄를 당했다. 네스토리우스 사상에 영향을 주었고 현대 자유주의 사상을 유발시켰다.

46) 심창섭·박상봉, 『교회사가이드』, 91.

47) 심창섭·박상봉, 『교회사가이드』, 91.

를 강조한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성경에 가까운 인간론을 정립하였다는데 있다. 논쟁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론을 연구하게 되고 신학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와 원죄의 전가, 원죄와 자범죄, 유아들의 원죄 상태에서의 출생, 인간의 전적 부패와 예정론이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사상과 정통사상은 칼빈의 인간론, 인죄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 2 절 중세교회 시대

제 2 절에서는 중세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이해되었던 인간론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대 그레고리와 당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스콜라학자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인간론은 어떤 것인지 알아볼 것이다.

1. 대 그레고리(Gregory The Great; 540-604)⁴⁸⁾

대 그레고리는 마지막 교부이자 첫 교황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롬바르드 족의 침공을 격퇴하고 협상하여 개종시킨 공헌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인간론은 죄를 대죄(大罪)와 소죄(小罪)로 구분하였다. 연옥에 가서 소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48) 그레고리 1세(540-604)는 로마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부친 사망 시 전 재산을 구제 및 수도원에 헌납하고 성 앤드류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했다. 교황이 되기 싫어 도망다니다가 590년 9월에 불들려 교황이 되었다. 롬바르드 족을 개종시키고 이탈리아와 남부 프랑스, 북아프리카까지 교황령화 시켰다. 그는 마지막 교부이자 첫 교황이 된다.

하였다.

그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 인간의 약함 때문이라고 보았다. 아담의 지은 죄는 자유행위였고, 여기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졌으며, 영적 죽음에 종속되게 되었다. 최초의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고 정죄를 받았다. 그는 죄를 죄책이라기보다는 약함과 병으로 보았다.⁴⁹⁾

또한 그는 인간이 자유를 잃은 것이 아니라 의지의 선만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의 어떤 공로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속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다. 인간은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어 신앙을 만들어 내고 과거의 죄의 죄책을 없앤다. 예정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이것은 후대에 칼빈의 예정론과 대립되었던 알미니우스의 예지예정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예비적인 은혜는 인간의 의지를 변화시킨다. 인간이 선행을 실제 행함에는 은혜와 자유의지가 서로 협력을 이루는 것이다.

그레고리는 예지예정적인 주장을 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협력적 구원론을 주장한다. 중세로 오면서 성경보다는 사색에서 많은 정보를 찾으려 했던 흔적들을 볼 수 있다.

2. 스콜라(Schola) 신학자들: 안셈, 토마스, 스코투스과 옥감

스콜라 신학자들은 중세기에 신학을 중심으로 철학을 연구한 사상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당대에 이미 형성된 교의를 철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변증하며 조직화하였다. 9c 초 찰스대제가 스승 알퀸을 초청하여 궁정학교를 연데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교회와 수도원의 부속학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신학조류를 스콜라 신학(변쇄신학)이라고 부른다.

보통 1-3기로 구분하는데 1기(9-12c)는 발생기로 안셈과 아벨라드 등이 있고, 2기(13c)는 전성기로 아퀴나스와 보나벤츄라 등이 있다. 3기(14-15c)는 쇠퇴기로 스코투

49) L. Berkhof, 『기독교 교리사』, 150.

스와 옥감 등이 있다.

먼저 1기로 등장한 만족설의 주장자 안셈(Anselmus; 1033-1109)⁵⁰의 인간 이해는 은혜와 본성의 문제에서 엿볼 수 있다. 초기 스콜라 학자들은 어거스틴의 신학적 유산에 상당부분을 근거하고 있었다. 원래 인간은 창조 당시에 부여된 은혜에 의해 의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의(義)는 의지를 바르게 사용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이 소유한 의지의 성실성(rectitudo)을 상실하였다. 또 자신의 힘에 의지해 의롭게 될 가능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안셈은 인간의 자범죄와 원죄를 구분하고 시작한다. 그의 공헌점은 바로 본래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구분한 것이다. 또 욕망과 죄도 구분했다. 원죄는 각자가 자신이 출생할 때 개인의 본성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원죄 뿐 아니라 본질적인 죄라고 부릴 수도 있다.⁵¹ 개인적인 죄는 “각자가 다른 개인들과 구분된 한 인격이 된 후에 범하는 죄”라고 지적한다.⁵² 이것은 개인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이라 불리운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부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아담과 하와 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인간의 몸과 영혼에 대해 죄는 전체를 부패시킨다. 인간의 본성은 배상할 수 없고 의를 회복시킬 수도 없다. 유아들에게서도 인간의 본성은 죄의 본성이다. 원죄가 있다면 이성적인 영혼도 있어야 한다. 유아들은 이성적 영혼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이성적 영혼을 가진 존재는 인간들이기에 유아들도 정죄에 떨어진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오염된 인류는 징벌을 받아야 한다. 그 징벌은 바로 죄의 대가이다. 하나님은 이런 죄의 대가를 위해 친히 인간이 되셨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고 출생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악 가운데 나서 죽게 된다. 안셈은 죄의 문제를 용기 있게 다루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유아들의 죄 문제 즉 본질적인 죄의 책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만족설(滿足說)이란 이론을 통해 하나님의

50) 안셈은 북이탈리아 아오스타 출신으로 수도원장과 캔터베리 대주교를 역임했다. 국왕 윌리엄 2세와 충돌하여 국외로 추방당했다. 하나님에 대해 존재론적 증명과 신앙우위론, 만족설, 대속적 속죄관을 주장하였다. 저서로는 『독백』, 『대화』, 『속죄론』이 있다.

51) G. W. Bromiley, 『역사신학』, 247.

52) G. W. Bromiley, 『역사신학』, 247.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져야 하고 그것을 대신 성취해 드리기 위해 성자가 오셔야 했음을 강조한다.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보상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인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⁵³⁾ 그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 값을 지불하셨다.

자유의지에 관하여서는 자유를 죄 있는 것이나 또는 죄를 짓지 않는 힘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천사들을 놓고 말할 때에 바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은 완전한 도덕적 자유를 소유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없다. 아담과 하와의 행위는 확실히 자발적이며 순수한 자기 의지에서 나온 행위였지만 진정한 자유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그는 말한다. 자유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을 가능성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라 한다.⁵⁴⁾ 의지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쪽으로 거룩을 선택하는 쪽으로 국한되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다. 외부의 어떤 강제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안셈은 만족설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한 발견이다. 안셈의 인죄관 즉 원죄와 개인적인 죄(자범죄) 구분, 인간의 전적 부패는 칼빈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2기의 대표자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7-1274)⁵⁵⁾는 원래 의의 조화가 상실됨으로 인해 혼란한 성벽이라는 의미에서 원죄를 신봉한다. 원죄는 공통된 근원으로 인한 원의의 결여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 안에 원죄는 존재하는 것이다. 본죄(자범죄)는 원죄와 구분되어 사람마다 그 성격과 범위가 다르다. 원래 인간은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은 타락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다. 다만 덕으로의 본성적 성향이 감소되는 것이다.⁵⁶⁾

인간이 가지고 난 선 자체는 타락 후에도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는다. 원죄와 본죄는

53) Justo L. Gonzalez, 『중세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99), 152.

54) L. Berkhof, 『기독교 교리사』, 154.

55) 아퀴나스(1227-1274)는 이탈리아 나폴리의 귀족 아퀴노 가문에서 출생하여, 5세때 몬테카지노 수도원에 입단, 19세 때 도미니크 수도원에 입단, 파리 대학 출신으로 알베르트 마그누스에게서 사사를 받고 평생 도미니크 수도사로 교육과 저술활동을 했다. 1272년 교황 우르반 2세의 초빙으로 나폴리 대학 교수가 되고 74년에 사망한다. 그의 저서는 『신학대전』, 『이교도 반박총서』, 『헬라 학풍에 대한 반박서』 등이 있다.

56) G. W. Bromiley, 『역사신학』, 275.

악함과 무지를 초래하고 영혼의 모든 능력들은 일정 정도의 고유한 질서를 결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죄는 사망을 초래한다. 사망은 인간에게 본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부패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즉 이성적 영혼과 우리의 목적 다시 말해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락에 적응시켰다.⁵⁷⁾ 즉 원죄를 인정하나 인간의 본성의 전적 부패를 강조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의가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의가 인간을 회복케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아퀴나스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도 어거스틴의 것과 다르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지성 혹은 이성 속에서 찾았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성적 피조물 중에 마음속에서만 발견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속에 3단계로 존재한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 둘째는 실제 존재함 즉 실제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함, 셋째 단계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 단계들은 자연인과 의인, 영화된 복 받은 자들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⁵⁸⁾ 즉 하나님의 형상이 보편적으로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인간 속에서 보여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총 없이 자연적 이성의 빛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더 나아가 이것은 은혜 없이도 인간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전적 부패를 부정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인간론의 근거가 된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 원의(*justitia originalis*)와 함께 은혜롭게 역사하는 은혜(*gratia gratum faciens*)를 받았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후자인 초자연적 은혜를 상실했지만 자연적 은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초자연적 은사는 상실했다. 이제 이성으로는 인간의 저급한 능력을 제어할 힘이 없다. 그래서 타락 전 인간은 자연적 능력에 덧붙여져야 하는 은사가 필요하다. 그 초자연적 은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타락 후 인간은 치유와 선을 행하기 위해 초자연적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⁵⁹⁾

아퀴나스의 사상에서 원죄는 칼빈도 동의한다. 그러나 전적부패를 부정하는 그의 사상은 칼빈으로 하여금 더욱더 전적 부패를 강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3기의 대표자인 스코투스(J. Duns Scotus; 1255-1308)⁶⁰⁾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57) G. W. Bromiley, 『역사신학』, 275.

58) 최홍석, 『인간론』, 110을 참고하라.

59) 최홍석, 『인간론』, 114.

반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토마스는 인간의 자연이성이 신앙으로 이끄는 통로라 했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성으로 근거할 수 없고, 오직 교회의 권위 아래서만 수납된다고 했다. 그리고 아담의 원죄설을 부정한다.⁶¹⁾

옥감(William of Occam; 1280-1348)⁶²⁾은 대부분 초기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몇 부분에서는 변형시키기도 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원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원죄는 아담의 죄책을 인간에게 돌리려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뿐이라고 보았다. 죄는 인간에게 악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성향이라 보았다.⁶³⁾ 그의 사상은 펠라기우스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었을 때에 은사들을 부여받는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공로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죄는 본성의 타락이 아니고 개별적 의지적 행위라는 믿음과 관련한 것으로 본다. 예정의 문제에서 옥감은 인간의 어떤 행위가 공로로 인정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관계가 단절되었다. 주입된 은혜는 공로로 인정받을 만한 행위의 필요조건으로 생각되지 않았다.⁶⁴⁾

스코투스과 옥감의 원죄 부정은 칼빈에게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철저하게 원죄를 주장하고, 전적 부패를 주장한 칼빈에게는 이들의 사상은 비성경적인 것이다.

3. 로마 가톨릭 교회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형상을 자연적 은사들로 보고, 모양을 초자연적 은사들로 보았다. 이러한 로마의 교회가 가진 인간관에 대한 이론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60) 스코투스는 영국 태생으로 프란체스코 단원으로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였고 옥스퍼드, 파리, 쾰른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다. 독일의 쾰른 수도원장도 역임했다.

61) 심창섭·박상봉, 『교회사가이드』, 153.

62) 옥감은 서레이 태생으로 프란시스코 수도단에 입단하였고 스코투스의 제자로 옥스퍼드 출신이다. 파리 대학의 교수를 역임하였으나 그의 사상으로 인해 파문당했다.

63) B. Hagglund, 『신학사』, 277.

64) B. Hagglund, 『신학사』, 278.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인간론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1) 창조 당시

로마 가톨릭은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연적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 이것을 형상(ἕκαστον)이라고 부른다(창1-2장). 이 형상은 이성, 양심, 판단력, 정의감, 영성, 의지의 자유 등을 내포한다. 이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창조하셨다. 이를 자연적 의의 상태⁶⁵⁾라고 한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이 자연적 의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봉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최초의 인간 속에 또한 욕망의 성향이 있었다. 이것은 자연적 의에 대항하려는 경향이다. 그러나 이 경향에 의지가 굴복하여 행위로 나타나면 죄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제어하기 위해 은사를 추가해 주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바에 의하면 마음속에 생각을 품는 것도 죄라고 지적하신다.⁶⁶⁾

초자연적 은사는 초자연적 모양이다. 이것을 은총(恩寵)이라고 하고 이것은 원의(原義)를 포함한다. 초자연적 은사 속에 원의가 내포되어 있다. 원의는 의와 거룩과 지식 외에도 다른 은사들이 더 포함된다.⁶⁷⁾

(2) 타락 후

인간에게 초자연적 은사가 소멸된 것은 최초의 인간 아담의 타락함으로 된 것이다. 그럼에도 자연적 은사는 유지된다. 그래서 덧붙여진 초자연적 은사만 상실이 된다.⁶⁸⁾

65) 최홍석, 『인간론』, 105.

66) 마 5:27-28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67) 엡 4:23-24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 3: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상실한다는 것은 원죄로 인한 것이다. 초자연적은총의 상실은 원의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적 은사들은 건재하다. 즉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헬라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헬라는 악은 불완전한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초자연적 은사와 자연적 은사는 유기적 관계가 아니다. 기계적이며 별개의 관계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헬라의 이원론에 근거한 주장이다.

(3)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 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영세를 받을 때에 초자연적 은사는 회복된다고 한다. 여기서 인간의 인식론의 면이 나타난다. 그들은 이성과 양심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다고 한다. 윤리 영역에서 보면 이것은 공덕 사상을 촉진한다.⁶⁹⁾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전적 부패의 사상을 거절한다.

이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상은 다음의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낙관적 인간관을 가져온다. 자연적 은사들이 타락 전과 같이 순수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죄를 지어 타락하여도 자연적 은사들 이성, 양심, 판단력, 정의감, 영성, 의지의 자유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발견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연 신학을 인정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상이 그것이다.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한 것이기도 하다.⁷⁰⁾ 일반 계시를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가치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공적 사상을 가져오게 된다.⁷¹⁾ 초자연적 은사들이 상실되어도 자연적 은사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종교개혁자들과 칼빈에게서 비판을 받게 된다.

68) 최홍석, 『인간론』, 107.

69) 최홍석, 『인간론』, 109.

70) 최홍석, 『인간론』, 109.

71) 최홍석, 『인간론』, 109.

제 3 절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 시대는 교황권의 부패가 겉으로 드러났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세교회를 한 마디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이 잘 설명해 준다.⁷²⁾ 사람들은 교황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는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었고 도덕적인 자질도 결핍되었다. 당시에 인문주의(人文主義)라 칭해지는 고전에 대한 관심도 부활하게 되었다. 남유럽은 그리스-로마의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북유럽은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를 중심으로 기독교 인문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와 함께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과 초대교부들의 믿음으로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등장한 개혁자 루터와 츠빙글리, 칼빈의 인간론을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들의 사상 가운데는 칼빈의 견해와 동일한 것도 있고, 상반되는 것도 있으며, 유사한 것도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 개혁자들: 루터, 츠빙글리, 칼빈

(1) 루터(M. Luther; 1483-1546)⁷³⁾

72) Tony Lane, 『기독교 사상사』, 김응국 역 (서울: 나침반, 1997), 241.

73) 루터는 독일 아이스레벤에서 출생하였고 공동생활 형제단의 영향을 받았다.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으며, 수도사회의 사명으로 로마여행 중 로마교회의 부패상을 목격하고 돌아왔다. 빗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항의문으로 교황청을 공격하고, 파문을 당한다. 1521년 보름스 회의에 소환되었고 수녀와 결혼을 하였다. 1546년 2월에 사망하였다.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도덕적, 지적, 사회적, 영적인 원인들로 인해 등장하게 되었다.⁷⁴⁾ 먼저 종교 개혁의 선구자인 루터(M. Luther; 1483-1546)의 인간관은 중세 교회의 인간관과 차이를 보인다. 많은 이들은 루터가 전인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루터는 인간의 영혼의 기원에 대해 유전설을 옹호하였다. 이것이 훗날 루터 교회의 주된 입장이 된다.⁷⁵⁾

하나님의 형상은 원의 즉 의, 거룩, 지식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⁷⁶⁾ 그래서 타락한 후에 인간은 죄악 덩어리이다. 전적부패를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원의로 보고 이것을 인간 안에 소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죄를 지음으로 이런 원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요소가 없다고 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한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형상을 소유한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죄론에 가면 원죄를 단순히 인간에게 있는 본래 거룩성의 결핍 상태로 보지 않았다. 실질적인 타락이며, 완전한 인간의 위에 남겨진 흔적이라고 보았다. 이런 원죄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타락은 칼빈에게서도 나타난다. 죄는 욕정이며 영혼의 뛰어난 능력을 포함한 인간 전체에 미치는 악이었다. 불신이라는 것은 죄이며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이었다. 그 불신 속에 모든 죄를 포함하고 있는데 제일이 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었다. 또 자기 사랑과 교만에서 나오는 악한 욕망들, 그릇된 의지등이 바로 죄악의 모습들이었다. 그래서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죄가 없을 수 없었다. 죄의 타락은 원래 선천적인 것이며 자연적 유전에 의해 거듭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경험, 의지에 의해 의식적 표현 이전에 인간 속에 죄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죄의 개념을 법률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죄와 혼동하면 안된다. 그에게 원죄는 ‘숨겨진 악’ (malum absconditum)이었다.⁷⁷⁾ 인간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신

74) 도덕적 원인은 속죄권 판매, 성직 매매 성행, 신부들의 독신생활 해이를 들 수 있다. 지적 원인은 스콜라 철학의 쇠퇴와 옥캄주의의 득세, 인본주의 대학의 활발한 학문 열의로 고전에 연구에 관심을 가졌다. 사회적 원인은 농업 경제가 상업경제로 전환되면서 국가주의 발전과 십자군 운동으로 동방의 사치품 수입으로 사치의 풍조가 만연되었다. 영적 원인은 사제주의의 횡포와 교황제도 하에서의 예배를 의식화함으로 영적인 황폐화가 초래되었다.

75) L. Berkhof, 『조직신학(상)』, 407.

76) 최홍석, 『인간론』, 128.

양에 관한 지식과 죄의 고백, 기도 속에서만 이런 죄의 실재성을 인정하게 된다.

자유의지에 대하여는 에라스무스(D. Erasmus)에 대항하기 위해 그가 쓴 『의지의 굴레에 관하여』(De servo arbitrio)⁷⁸⁾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인간의 구원이나 영원한 축복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인간에게는 전혀 자유의지가 없으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성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했다.”⁷⁹⁾

루터는 성경에서 만큼은 자유의지의 개념을 뒷받침해줄 근거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에라스무스가 주장하는 식의 그런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순전히 망상에 불과한 것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었다. 성경의 가르침에는 인간의 자유 능력에 구원을 호소하는 일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자유의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구원을 위해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의지가 의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의지가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⁸⁰⁾

루터는 예정에서 칼빈과 같이 이중예정을 믿었다.⁸¹⁾ 그러나 칼빈처럼 뚜렷하게 교리

77) B. Hagglund, 『신학사』, 319.

78) 이 책에서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에라스무스	루터
자유의지	· 인간은 의지적, 지적, 윤리적 행위가 가능하다. ·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 이성은 경험으로 가능하나 종교적 영역은 불가능하다. ·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다.
구원	· 은혜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79) B. Hagglund, 『신학사』, 321.

80) G. W. Bromiley, 『역사신학』, 318.

81) 루터는 롬 8:28을 주석하면서 선택된 자의 세 가지 부류 혹은 단계들을 주장한다.

첫째 단계는 만족하는 것이다. 자신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는 선택자들이다.

둘째 단계는 유기된 자들로 간주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자들이다.

셋째 단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옥에라도 자신을 포기하는 택자들이다.

cf. G. W. Bromiley, 『역사신학』, 318.

를 내세우지 못했다. 때로는 유기의 교리를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미리 아는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라 표현하기도 했다.⁸²⁾

루터가 예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했던 것은 아마 이신칭의에 더 관심을 가졌던 이유일 것이다. 그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조하였던 것은 로마 교회의 행위구원, 공로구원에 반대하는 이신칭의였기 때문이다.

(2) 츠빙글리(U. Zwingli; 1484-1531)

성만찬의 상징설(象徴說)로 유명한 츠빙글리는 인간의 원죄의 문제에 있어서 빈약한 모습을 보인다. 원죄를 정당한 의미에서보다는 병이나 조건으로 보았다.⁸³⁾ 이것은 대그레고리의 견해와 같은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세상에 질병이 들어오고 여러 악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원죄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질병이고, 그 외의 고통과 악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같은 것들이라고 보았다. 츠빙글리의 이런 원죄론은 칼빈의 원죄론과 다른 것이다. 죄를 본성의 부패와 영혼의 죽음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

전적인 부패의 교리에서 인간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의존된다는 사상을 가졌다. 이것은 츠빙글리와 루터, 칼빈이 모두 일치하였다.⁸⁴⁾

칼빈처럼 신적인 원인과 죄와의 관계를 말하는데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였지만 유기를 효과적인 작정이라고 주장했다.⁸⁵⁾ 츠빙글리는 원죄를 말할 때에 질병이나 악의 모습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다른 개혁자들처럼 죄의 문제를 바르게 정리하지 못하였지만 유기에 있어서는 바르게 정리하고 있다. 그는 유기를 하나님께서 선택처럼 효과적으로 작정해 놓으신 것이라 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예정을 강하게 주장한 점이 그의 공헌이다. 이점에서는 칼빈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82) L. Berkhof, 『기독교 교리사』, 159.

83) L. Berkhof, 『기독교 교리사』, 158.

84) L. Berkhof, 『기독교 교리사』, 158.

85) L. Berkhof, 『기독교 교리사』, 159.

(3)칼빈(J. Calvin; 1509-1564)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에게 영향을 준 견해들은 중세 스콜라주의와, 루터파, 그리고 츠빙글리의 인간론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과 어거스틴의 인간론이 개혁자인 칼빈에게 이어진 것이다.

첫째, 타락 이전의 상태이다.

칼빈은 오시안더의 이론⁸⁶⁾을 반박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영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했다. 오시안더는 아담이 화육하실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그리스도께서 받도록 되어 있는 육신은 인간 육신의 근본이며 원형이라고 했다. 이런 오시안더의 입장을 반대하기 위해 칼빈은 영적인 것을 강조한 것이다. 첫 사람의 경우 그리스도의 형상만으로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양이 되셨다.⁸⁷⁾ 칼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육신은 유사적일 수 없다는 것과 화육하실 그리스도를 인간의 원형이라 보지 말고 삼위 일체 하나님의 신적 본질을 원형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여겼다.⁸⁸⁾

스콜라주의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전체에 즉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86) “오시안더는 작은 책자 *An filius Dei fuerit incarnandus . . .*에서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며 따라서 타락이 없더라도 성육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오시안더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그와 함께 신화될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전적 타락이나 전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교리도 부인된다. 주입된 은혜(*gratia infusa*)가 전가된 은혜(*gratia imputata*)를 대체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근거가 사라진다.” cf. 문병호, “칼빈의 교회론,” <http://theologia.co.kr/cgi-bin/spboard/board>.

87) 최홍석, 『인간론』, 143.

88) 창 1:26-28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

빛이 드러나지 않은 곳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전인적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⁸⁹⁾

칼빈의 신형상 이해는 전인성, 통전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스콜라주의의 주지주의적 성향과 루터파의 원시의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견해에 대해 반대하여 전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찾으려 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의 개념은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에 대한 통치 즉 탁월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이성과 이해력, 감정, 육신의 감각들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⁹⁰⁾

또한 칼빈은 인간 영원의 기원에 대해 창조설을 단적으로 선호하였다. 창 3:16의 주석에서 그는 일부의 작가들이 꾸며낸 이야기에 근거해 영혼이 최초의 부모로부터 유전되었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⁹¹⁾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는 공통된 입장은 바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⁹²⁾

둘째, 타락 후의 상태이다.

칼빈은 스콜라주의자들의 견해들을 반대하여 다른 주장을 한다. 그것은 형상과 모양을 다른 실체로 파악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것, 타락 후 모양은 상실되나 형상은 창조 시와 다르지 않고 존재한다는 스콜라 신학의 견해를 거절한다는 것, 타락 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 등이다.

칼빈에 의하면 타락 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⁹³⁾을 강조한다. 칼빈은 타락한 인간, 인간성 중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는 흔적을 발견함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 인간을 구분한다고까지 말했다.⁹⁴⁾ 이렇게 타락 후에도 남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의 잔여물 혹은 흔적이라 했다.⁹⁵⁾

타락 후에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은 전적으로 죄의 영향이 놓이게 된다. 지성과 의지, 판단이 모두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완전히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지만 부패하여 괴물처럼 보이기만 한다. 이를 추악하게 기형이 되었다고 말한다.⁹⁶⁾ 칼빈은 부패 후에 원시의 즉 영적 특질(참 지식, 의, 거룩)과 잔존하는 것 즉 자연적

89) 최홍석, 『인간론』, 144.

90) 최홍석, 『인간론』, 149.

91) L. Berkhof, 『조직신학(상)』, 407.

92) 뉴잉글랜드의 조나단 에드워즈와 홉킨스는 영혼유전설을 주장하는 입장에 있다.

93) 최홍석, 『인간론』, 153.

94) J. Calvin, *Inst.*, II.2.17.

95) 최홍석, 『인간론』, 153.

96) 최홍석, 『인간론』, 155.

은사인 이성, 양심, 도덕성, 의지의 자유 등이 있다. 그런데 원시 의는 상실되고 자연적 은사는 잔존한다고 하였다. 타락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성결과 의를 향한 열망 등이 상실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동시에 잔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내에서 전적으로 말소되고 파괴된 것은 아니나 부패가 너무 심해 남은 형상까지 무서울 정도로 추악하게 기형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상태이다.

칼빈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의 본래 능력을 상실했다. 전 인류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초자연적인 은사는 박탈당하였다. 그리고 자연적 은사는 부패하였다. 그러나 짐승과 구별되는 인간의 이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이성은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 보실 때의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⁹⁷⁾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과 영적인 선행이 가능하다.

타락한 인간이 새롭게 회복되는 길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방편으로 하여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나타난다고 한다.⁹⁸⁾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책임성을 강조한다.

범죄함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회복하는 길, 중생의 목표는 신자들의 생활을 통해서 구현된다. 이것은 전인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인간의 의식과 존재, 지식, 의, 거룩성의 회복을 비롯하여 이들로 말미암아 유발되는 전인격 인간 전 존재의 갱신을 포함한다. 이런 갱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을 이루기 위해 내세로 달려간다. 즉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최종 실현이 되는 것은 이 세대를 넘어야 한다.

최홍석 교수는 칼빈의 신 형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⁹⁾

첫째, 칼빈의 신 형상이란 개념은 포괄성을 특징으로 한다. 인간의 전인적 국면, 영혼과 육체 속에, 모든 재능과 능력, 모든 상태와 관계 속에 반영이 된다고 본다.

둘째, 기독교 사회 윤리의 기초를 제공한다. 타락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

97) 최홍석, 『인간론』, 157.

98) 최홍석, 『인간론』, 158.

99) 최홍석, 『인간론』, 163-165.

는 개념은 기독교의 사회 윤리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셋째,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죄가 심각하기에 죄악에 오염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가질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 이것이 죄가 가져온 결과들이다.

넷째, 은총과 책임, 현세와 내세의 양면성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즉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타락한 형상이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면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실천적 면에서 나와야 한다.

다섯째, 부족한 점들도 있다. 주장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된다. 그러나 통전적 면에서 조망한다면 이런 부분은 해석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여섯째,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큰 틀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발견하게 해 준다. 그리고 구원받은 중생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해 준다.

이런 많은 부분에서 칼빈의 인간론은 우리들에게 성경적 인간관을 가지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제 4 절 요약 및 소결론

제 2 장에서는 역사적인 부분에서 인간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교부시대부터 칼빈에 이르기까지 칼빈에게 영향을 준 선배 신학자들의 계보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제 1 절에서는 교부시대 시대에 등장한 교부들의 신학을 살펴보았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인간의 영과 육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연합적이고 조화적이며 불가분적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이 부분은 칼빈의 인간 영혼과 육체의 이해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스의 교부 성경주의 신학자였던 이레니우스는 창 1:26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

과 같이 되어지도록 창되었다고 보는 부분에서 칼빈과 다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과 육체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칼빈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풍유 해석가인 오리겐은 영혼선재설을 주장하고, 형상과 모양을 이성적 존재와 보상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사상은 칼빈으로 하여금 인간의 공로주의와 신인협력구원이라는 비판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터툴리안의 영혼 유전설과 원죄설의 강조는 칼빈으로 인간 이해를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의 영혼 유전설은 영혼 창조설을 주장한 칼빈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러나 원죄를 강조한 것은 칼빈에게도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칼빈은 원죄설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전적부패까지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런 터툴리안의 원죄설은 어거스틴과 칼빈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칼빈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어거스틴은 원죄론과 인간 의지의 부패와 무능력의 부분에서 공헌을 하였다.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벌을 가져오게 되었고 결국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은 유아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인 인간은 죄 가운데서 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의지는 부패하여 무능력하게 되었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강조한다. 펠라기우스와 논쟁을 통해 어거스틴의 인간 이해는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견해로 자리를 잡았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은 성경에 가장 가까운 인간론을 정립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정통적인 인간 이해는 칼빈의 인간론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제 2 절에서는 중세교회 시대로 대 그레고리와 스콜라 신학자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인간론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사상들은 칼빈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먼저 마지막 교부인 동시에 첫 교황인 대 그레고리(Gregory The Great; 540-604)는 칼빈의 신학에 반대한 알미니우스의 예지예정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칼빈의 이중 예정과는 전혀 다른 길을 인도했다. 그의 협력구원론도 칼빈의 은혜구원론에 반대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살펴본 스콜라 신학자들은 1기 안셈, 2기 토마스, 3기 스코투스과 옥캄 등이다. 먼저 안셈(Anselmus; 1033-1109)은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2기의 대표 신학자인 토마스는 안셈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토마스는 하나님의 형상을 3단계로 구분하고, 초자연적 은혜는 상실했지만 자연적 은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여 전적 부패를 부정하고 만다. 이것은 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인간론의 토대가 되어 칼빈의 공격을 받게 된다. 3기의 대표자인 스코투스(J. Duns Scotus; 1255-1308)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반대하여 아담의 원죄설을 부정한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옥캄도 원죄를 부정한다. 또 전적 부패를 부정한 이들의 사상은 칼빈을 성경적인 인간 이해로 인도해 주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인간론은 자연적 은사들의 타락을 부정하고, 이것으로 윤리적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낙관적 인간관을 가진다. 또 자연신학을 인정하여 특별계시의 가치를 부정하게 만든다. 이들 인간론은 공격 사상을 가져온다. 타락 후 초자연적 은사는 상실해도 자연적 은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전적 부패를 부정해 버린다. 이런 사상은 종교개혁자이며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외친 칼빈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제 3 절에서는 종교개혁 시대로 루터, 츠빙글리, 칼빈의 사상을 보았다. 루터(M. Luther; 1483-1546)는 원죄가 실질적이고 완전 타락했다고 한다. 또한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이중예정을 믿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중요한 외침이었던 이신칭의는 칼빈에게 그대로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루터와 동시대 개혁자인 츠빙글리(U. Zwingli; 1484-1531)의 전적부패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음에 대해 칼빈은 동의한다. 또 유기를 작정에 집어넣어 이중 예정을 말했다. 물론 원죄를 질병이나 악의 모습들이라고 주장하여 칼빈처럼 바르게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부분 인간론에서 일치하였다.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시대의 칼빈까지 형성되고 발전되어진 인간론은 대단한 성과를 이룩했다. 그러나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사색과 철학적인 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인간론이 아직도 팽배하게 교회 안에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비성경적인 인간론에 근거하여 현대에 진화론과 과학적, 유물적, 이성적 인간론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으로 나가게 된다.

성경에서 인간론을 발견하고 정리한 칼빈과 그 후계자들이 이룩한 개혁신학이 말하는 인간론을 정리하고 교육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다음 제 3 장에서는 바로 개혁신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인간론을 살펴보고도 록 할 것이다.

제 3 장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인간론

존 칼빈은 1509년 7월 10일에 파리에서 100km 동북쪽에 떨어진 피카르디 지방의 누아용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제라르는 원래 보잘 것 없는 집안의 출신이었다. 사공의 아들로 살다가 사공의 노를 버리고 사무직의 붓을 들기 위해 누아용으로 이주하여 시 청서기가 되었고 주교와 교구의 성직자의 사업 담당자가 되어 시민 계급에 들어가게 되었다.¹⁰⁰⁾ 그의 어머니 잔느 르프랑은 누아용 시의회의원이 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한 중산층의 딸이었다. 그녀는 네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 그리고 어려서 세상을 떠난 막내를 낳았다. 그러나 그녀는 칼빈이 6살이 되는 해에 죽고 만다.

칼빈은 1523년에 아버지의 권유로 파리대학에서 논리학과 철학, 인문과학을 공부하고 오를레앙, 부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¹⁾ 그 후에 칼빈은 그의 친구였던 니콜라스 코프(Nicholas Cop)가 파리 대학의 총장 취임 연설문 사건으로 1534년 방랑의 길에 오르게 된다. 그는 친구가 사는 앙골름, 네락, 노용, 스트라스부르그를 전전하다가 1535년 1월에 바젤로 오게 된다. 바젤로 돌아온 칼빈은 자신과 같은 신앙은 가진 형제자매들이 잔인한 박해를 받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바젤 시에서 용기를 내어 붓을 들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사상 유명한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가 되었다. 이 책은 1536년 4월에 바젤에서 출판되었다. 그때 칼빈의 나이는 겨우 26세였다.¹⁰²⁾

칼빈의 『기독교강요』가 나오자 사람들은 놀랐다. 그는 즉시 복음주의 신앙의 챔피언들 가운데 정상에 우뚝 서게 되었다. 개혁파의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¹⁰³⁾

계속하여 그는 23년 동안 개정하여 방대한 저서로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박건택, 『종교개혁사』(서울: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5), 46.

101) 심창섭·박상봉, 『교회사가이드』, 216.

102)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서울: 성광문화사, 1995), 53.

103)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역사가인 F. W. Kampschulte는 칼빈을 아리스토텔레스라 불렀고 프랑스의 역사가인 Martin은 그를 신교의 토마스 아퀴나스라 불렀다.

1559년 결정판과 초판 사이에 중대한 차이는 조금도 없었다.¹⁰⁴⁾ 『기독교강요』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 저자의 특징이었던 충실한 해석과 조직적인 체계를 위한 세심한 관심이다.

본 3장에서는 『기독교강요』를 통해 칼빈이 정리하였던 인간론을 살펴볼 것이다. 1절에서는 창조 당시의 인간을, 2절에서는 타락 후의 인간을,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후의 인간을, 4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간을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창조 시 인간

제 1 절에서는 창조 당시의 인간에 대해 칼빈이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했는지 『기독교강요』를 통해 정리해 볼 것이다. 먼저 『기독교강요』 I 에 나타난 인간의 순결한 인간성과 인간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의지의 자유에 대한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6일째 창조하신 인간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볼 것이다.

1. 순결한 인간성

칼빈은 인간의 사색과 과학으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참 뜻을 살필 수도 없고 또 살펴서도 안 된다” 고 했다.¹⁰⁵⁾ 하나님을 우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나 현대의 진화론, 이신론, 유신진화론과 같은 것들은 인간의 사색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사색으로부터 나온 사상들을 거

104)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55.

105) J. Calvin, *Inst.*, I.14.1.

부한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 지혜, 선을 보여 주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두드러진 표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말한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 명백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 106)이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순결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다.¹⁰⁷⁾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인간의 악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불경건함의 모든 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행위이며 고의적인 책임의 전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흠으로 만드신 것을 보면 인간의 교만에 대해 견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⁸⁾ 인간은 흠과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 존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과 관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칼빈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가운데 만들어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보다 인간을 순결하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귀하게 창조된 인간이 범죄함으로 더러워지고 뒤틀려진 비참한 존재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2. 인간 영혼의 기능

인간의 영혼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영혼의 기원에 대한 칼빈의 입장은 유전설도 선제설도 아니다. 그는 창조설을 주장한다. 그리고 영혼의 기능에서 플라톤과 달리 두 가지 즉 오성과 의지를 강조한다.

106) J. Calvin, *Inst.*, I.15.1.

107) J. Calvin, *Inst.*, I.15.1.

108) J. Calvin, *Inst.*, I.15.1.

(1) 불멸적이고 창조된 실재

신학의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영혼의 기원에 대해 세 학설이 있어왔다. 영혼선재설은 이미 존재한 영혼이 출생과 더불어 육체 속으로 들어온다는 주장이다. 오리겐이 이 학설의 대표적 주장자이다. 또 한 가지 학설은 영혼 유전설이다. 인간의 영혼이 출생할 때 육체와 더불어 영혼이 부모에게서 전달된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식들에게 유전되는 것이다. 초대교회 터툴리안, 루피누스, 아폴리나리우스, 닷사의 그레고리 등이 주장했고, 종교개혁시대에는 루터와 루터교회들이, 개혁파 안에서는 스미스(H. B. Smith)와 쉘드(Shedd), 스트롱(A. H. Strong)이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¹⁰⁹⁾ 세 번째 이론은 영혼 창조설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의 행위로 영혼을 창조하셔서 육체와 결합된다는 주장이다. 칼빈이 이 입장에서 있다.

창조 당시에 인간의 영혼은 불멸적이면서도 창조함을 받은 실재였다.¹¹⁰⁾ 이것이 인간의 고귀한 부분이다. 영은 영혼과 동일한 말이다(전 12:7). 영혼이 실재가 아니라 운동이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죄책 때문에 공포를 느낄 수 없다. 육체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영적 형벌에 놓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이 실재한다면 영적인 형벌이 이해되어지고, 세계를 초월하는 영혼이 불멸적 존재하는 것을 가능하다.

또한 영혼은 육체와 분명히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흙에 살다가 죽을 때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몸으로 행한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욥 4:19).

영혼은 이렇게 육체와 다른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영혼은 육체와는 달리 불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유전된 것이 아니라 창조함을 받은 실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칼빈은 성경에 근거하여 영혼의 창조론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개혁파의 정통적인 영혼에 대한 관점이다.

109) L. Berkhof, 『조직신학(상)』, 407-408.

110) J. Calvin, *Inst.*, I.15.2.

(2) 오성과 의지

칼빈은 영혼의 기능에 대해 『기독교강요』에서 밝히고 있다. 영혼은 무형의 실체이다. 또 영혼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육체를 거주하는 장소로 하여 머물고 육체의 모든 부분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부분에 기관에 행동과 활동과 수위를 조절하고 지상의 생활 속에 의무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행동을 조절한다.¹¹¹⁾

칼빈은 영혼을 플라톤(Platon)이 3부분¹¹²⁾으로 구분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 칼빈은 영혼의 근본적인 기능을 오성(지성)과 의지로 구분한다.¹¹³⁾ 그것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형벌에서 오는 인간의 부패를 모르고, 대립되는 사람의 두 상태를 혼동하여 주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 영혼의 오성이 하는 일은 대상을 식별하여 대상을 시인하든지 거부하든지 하는 것이다. 어떤 대상이 있을 때에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를 오성이 식별한다. 그렇게 되면 의지가 오성이 판단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 즉 의지가 하는 일은 오성이 선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선택하여 추구하고 오성이 거부하는 것을 거절하며 피하는 것이다.¹¹⁴⁾

이 두 기능 중 어느 하나도 관계가 없는 힘이 영혼 안에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 감각을 오성에 포함시킨다. 철학자들은 욕구라는 말을 즐기지만 칼빈은 의지라는 말을 사용한다.¹¹⁵⁾

칼빈은 이처럼 영혼의 기능을 오성과 의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이 근본적인 영혼의 기능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에게 영혼은 무형의 실체이며,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 보았다.

111) J. Calvin, *Inst.*, I.15.6.

112) 플라톤은 오성, 이성, 상상력의 인식기능과 의지, 분노, 욕망의 욕구기능으로 구분한다.

113) J. Calvin, *Inst.*, I.15.7.

114) J. Calvin, *Inst.*, I.15.7.

115) J. Calvin, *Inst.*, I.15.7.

3.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자연주의적 견해로는 오리겐과 클레멘트의 견해가 있고, 저스틴과 펠라기우스의 견해가 있다. 전자의 입장은 창 1:26에는 형상과 모양이 등장하나 1:27은 모양만 등장한다. 그래서 형상은 이성적 존재로 파악하고 이성을 가지고 순종하면 보상으로 모양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후자의 견해는 원래의 인간의 본질은 선도 악도 아닌 상태였다. 이런 윤리적 중립 상태였는데 자유의지만 주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한 하나님처럼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완전이 가능해지고 타락해도 이 완전의 가능성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영원하고 항구적인 것이다. 초자연적 견해는 로마교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조 당시에 두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 자연적 은사들(이성, 양심, 판단력, 정의감, 영성, 의지의 자유)과 초자연적 은사들(은총과 원의=의, 거룩, 지식)이다. 타락 후에는 초자연적 은사가 상실되었다. 그러나 자연적 은사는 건재하다. 영세를 받을 때에 초자연적 은사는 회복되고 그래서 전적부패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나간다.

루터파는 하나님의 형상을 원의(의, 거룩, 지식)으로 본다. 타락 후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회개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이다. 원의는 타락 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 그래서 타락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개혁파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한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본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견해이다. 이를 협의와 광의의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협의는 기능적 측면들로 원의(지식, 의, 거룩)이다. 광의는 구조적 측면으로 이성과 양심이다.¹¹⁶⁾ 그러면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16) 개혁파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견해

원래상태	부패상태	중생	영화
무죄. 하나님의 형상. 제한적 지식과 의와 거룩 소유	기형물만 존재. 전적 타락과 오염	협의만 회복. 광의는 칭의와 성화로 회복되어감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

(1)영혼과 육체의 관계=전인성

루터파는 원의 즉 도덕적인 자질이나 영적인 특질들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본질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는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¹¹⁷⁾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외형에서 빛나고 있으나 그 형상의 본래 좌소가 영혼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형은 동물들과 구분시켜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해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것이다.¹¹⁸⁾

어떤 이들은 칼빈이 오시안더를 공격함으로 인해 영육 이원론자가 아닌가라는 비난을 하기도 한다.¹¹⁹⁾ 그러나 칼빈은 인간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했다.

창 9:6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인간이 피를 흘리게 되면 그도 피를 흘릴 것이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에 대한 주석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가 이 사실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렸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쉽게 답변해 주겠다. 첫째, 그 형상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래서 인간은 아직 적잖은 숭고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하늘나라의 거룩하신 창조주는 제 아무리 인간이 부패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분의 원래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지키고 나아가신다는 사실이다.”¹²⁰⁾

117) J. Calvin, *Inst.*, I.15.3.

118) 칼빈이 오시안더(Osiander)를 공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시안더는 하나님의 형상을 육체와 영혼 양자에게 확대함으로 하늘과 땅을 혼합하려 했다.

119) Hendrikus Berkhof와 G. Heitink가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그러나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자세히 보면 그가 영육이원론을 주장했던 재세례파를 혹독하게 비판하였음을 볼 때 칼빈은 영육통일체를 주장한 것이 바른 관점이다. 칼빈은 육체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에서 육체도 배제한 것이 아니다. 칼빈은 인간을 전인적으로 본 것이다. cf. 최홍석, 『인간론』, 143-145.

120) J. Calvin, 『성경주해: 창세기』, 번역위 역 (서울: 성서원, 2000), 273-274.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칼빈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둘째,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기는 했지만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린도전서 11:7¹²¹⁾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에 대한 칼빈의 주석이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ad imaginem Dei)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또 바울은 여자들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형상을 따라 재창조되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여기서 형상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 그는 대우주의 순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¹²²⁾

칼빈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에 구분 없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끝으로 야고보서 3:9을 보도록 하겠다.¹²³⁾ 이 부분의 주석에서도 칼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척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들에게 욕을 퍼부음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업적을 두고 찬송을 돌린다면 특별히 그의 형상과 영광을 빛나게 보여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위선”이라고 했다.¹²⁴⁾

이 주석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타락한 후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칼빈은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을 육체와 영혼 이분법이 아니라 전인적으

121)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εἰκὼν καὶ δόξα θεοῦ)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122) J. Calvin, 『성경주해: 고린도전서』, 번역위역 (서울: 성서원, 2000), 318.

123) 약 3:9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τοὺς καθ’ ὁμοίωσιν θεοῦ γεγονότας)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24) J. Calvin, 『성경주해: 야고보서』, 번역위역 (서울: 성서원, 2000), 341.

로 보고 있다.

(2)형상과 모양

또한 칼빈은 형상과 모양이란 단어를 설명하면서 두 말 사이의 차이점이 없음을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보도록 하자.

“사실 “모양”이라는 말은 설명을 위하여 첨가된 것일 뿐 그 두 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첫째, 말을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어서 그들은 한 가지 일을 두 번 연거푸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둘째, 이 문제 자체에서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까닭에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조금도 모호하지 않다. 따라서 이 두 말을 더욱 난해하게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¹²⁵⁾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의미는 아담의 완전함을 뜻한다. 아담은 처음에 바른 이해력을 가졌다. 그래서 감정을 이성애 종속시켰고 일체의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 좌소가 가슴, 마음, 영혼과 그 능력에 있다고 해도 인간의 어느 부분도 심지어 육체까지도 그 광채의 얼마나 빛나지 않는 곳이 없다.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들은 세계 도처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을 하나로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완전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125) J. Calvin, *Inst.*, I.15.3.

(3)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

칼빈은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형상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될 때에 우리도 같이 회복되어 참된 경건과 의, 순결, 지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¹²⁶⁾

아담이 부여받은 순결함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표현이다. 아담이 올바른 이해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모든 감정들이 이성의 범위 안에 잘 보존되어 있었고 육체적 감각들 역시 올바른 질서 속에 있었다. 아담은 자신의 우월성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모든 은사들이라 돌렸다.¹²⁷⁾

그리고 칼빈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정신적인 빛의 아래에서 순수한 마음, 모든 건강한 각 기관들에서 보여 질 수 있다고 했다.¹²⁸⁾ 골 3:10과 엡 4:24에 근거하여 인간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참 지식, 의, 거룩성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창조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초자연적 은사들은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자선, 성결과 의에 대한 열정이었다.¹²⁹⁾ 원래의 상태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다른 인간을 향해 대화하며 반응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칼빈이 이해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칼빈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존재와 기능의 차원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간의 전인적 면, 영혼과 육체 속에, 모든 재능과 능력들 속에, 상태와 관계들 속에 반영되는 것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원론에 반대하는 개념의 하나님의 형상론을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³⁰⁾

이러한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론은 개혁파의 하나님 형상 이해에도 영향을 주었다.¹³¹⁾

먼저 개혁파는 칼빈과 같이 인간의 영혼 속에 드러난다고 보았다. 인간의 영혼이 가진 속성들은 영성(spirituality)과 불가견성(invisibility), 그리고 통일성(unity), 단순성(simplicity), 불멸성(immortality)등이다.

두 번째는 원의 즉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의 덕행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하나님은

126) J. Calvin, *Inst.*, I.15.4.

127) J. Calvin, *Inst.*, I.15.3.

128) J. Calvin, 『성경주해: 창세기』, 1:26.

129) J. Calvin, *Inst.*, II.2.12.

130) 최홍석, 『인간론』, 163.

131) 최홍석, 『인간론』, 139.

참된 지식 그 자체이다. 그리고 의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런 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은 당연히 그분의 참 지식과 의와 거룩의 덕행을 소유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심리적인 기능들이다. 육체적 생명의 중심이 마음이고 이것이 모든 심리의 원천이다. 감정과 욕망, 의지, 생각과 지식, 한탄 모두가 심리적 작용의 근거이며 원천이다.

네 번째는 인간의 몸이다. 창 2:7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 한다. 즉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생명의 호흡)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아담(אָדָם)은 어원이 ‘땅’ 이란 단어 아다마(אָדָמָה)에서 왔다.¹³²⁾ 그러나 육체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런 개혁파의 하나님의 형상론에 기초는 바로 칼빈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의 공헌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

4. 의지의 자유

어거스틴과 반대편에 섰던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대 그레고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협력적 구원론을 주장한다. 그러면 칼빈은 의지의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에 마음을 주시고 선을 행하게 하셨다. 이성의 빛을 안내자로 하여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여기에 의지를 부여하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인간의 최초의 상태는 탁월한 은사들로 뛰어난 품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성과 지성, 사려를 분별하는 능력과 판단력은 지상의 생활을 하는데 충분하였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죄를 짓지 않을 수(poss non peccare)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그래서 도덕적 완전성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을 수 있었고 뱀의 유혹에서도 이길 수

132) 최홍석, 『인간론』, 139.

있었다.¹³³⁾

칼빈은 아담의 본래 의지의 자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였더라면 자유의지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일의 발생 여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참된 본성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밀한 예정의 문제를 여기서 소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가 원하기만 했더라면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다만 자신의 의지로 타락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 질 수 있었으며 따라서 항구적인 인내성을 받지 못했던 까닭으로, 그는 아주 쉽게 타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선악을 선택하는 일은 자유로 왔다. 그러나 이뿐 아니었다. 그가 자신을 파멸시킴으로써 자신의 축복을 부패시키기 전에는 그의 마음과 의지는 최고의 공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모든 유기적인 부분들은 순종할 수 있도록 바르게 조직되어 있었다.”¹³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의지의 자유는 동물들과 다른 것이다. 동물들에게는 없는 것으로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것이다.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었다. 즉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인간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¹³⁵⁾

그러나 아담은 어떠했는가? 그에게 부여하신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파멸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창 3:6).¹³⁶⁾ 그의 의지의 자유적인 결정은 결국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던 의지는 인간의 범죄로 파멸을 자초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주신 것이었다. 아담이 의지를 바르게 사용하였더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이 분명하다.

133) A. A. Hoekema, 『개혁주의 인간론』, 381.

134) J. Calvin, *Inst.*, I.15.8.

135) J. Calvin, *Inst.*, I.15.8.

136) 창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לֹאִים).”

제 2 절 타락 후 인간

제 2 절에서는 칼빈의 타락 후의 인간론을 살펴볼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의지의 자유를 남용하여 사탄의 유혹에 동의하는 것(선악과를 따먹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되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런 원죄를 물려주게 되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다. 그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칼빈은 『기독교강요』 II권에서 자세히 밝혀주고 있다.

1. 아담의 범죄로 인한 원상태의 부패: 원죄론(原罪論)

아담의 범죄로 인해 원래의 상태는 부패하게 되었다. 칼빈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원래 상태가 부패하였음에 대하여 『기독교강요』 II.1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지어 살피고 있다. 첫째, 인간 자신에 대한 왜곡현상이다. 둘째, 전 인류의 파멸이다. 셋째, 본성의 부패인 원죄가 그것이다.

(1) 자기 인식에 대한 왜곡현상

1) 자기 왜곡

사람은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칼빈은 『기독교강요』 I.1.1에서 말한 바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설 때에 우리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 칼빈의 생각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자신을 알 수 없다. 또한 자신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다.

칼빈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첫째, 창조 시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대한 호의를 계속하시는가를 생각하는데 있다고 했다.

즉 아담에게 주셨던 능력, 칼빈의 말로 하면 선천적인 우수성을¹³⁷⁾ 유지하였더라면 얼마나 인간이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였겠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이다.

둘째, 아담의 타락 이후에 불행하게 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다.¹³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아름답고 선한 모습, 위대한 대리 통치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범죄한 후의 인간의 모습은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 비참한 모습이 된다. 그래서 죄로 인한 수치심으로 위축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 가운데 피조물을 통치하는 아름답고 고귀한 역할은 이제 왜곡되고 우둔함과 미련함으로 묻히게 되고 말았다.

원상태의 타락으로 이렇게 왜곡되어진 인간은 자신을 바로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자신에 대한 증오와 불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생겨나게 되고 완전하게 상실해 버린 선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겠다는 새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

2) 망상적 자아도취

원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망상적 자아도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칼빈의 견해이다.

137) J. Calvin, *Inst.*, II.1.1.

138) J. Calvin, *Inst.*, II.1.1.

“수치심으로 우리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빈곤과 치욕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선한 특징들을 고려하라고 하는 원칙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를 나는 잘 알고 있다. 사실 사람의 본성은 남의 아첨을 받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없다. 따라서 자신의 천품이 높이 평가되는 것을 알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천품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대개 치명적 오류를 범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맹목적인 자애는 모든 인간의 천성이므로, 자기들의 천성에는 가증하다고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사람들은 가장 선선히 믿어 버린다. 따라서 사람은 선하고 복된 생활을 할 풍부한 능력을 타고 났다는, 이 완전히 허망한 견해가 아무 외부의 지지가 없어도 일반적으로 신뢰를 얻는다.” 139)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능한 존재라고 착각을 한다. 동시에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낮추는 자기기만에 빠져 살아가는 오류를 범한다. 하나님의 자리에 마치 자신이 서고자 하는 생각들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경에 이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바로 사사 기드온(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볼 수 있다.¹⁴⁰⁾ 아비멜렉은 자신의 부친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역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백성들이 아비에게 왕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또한 목격했다. 그는 아비도 할 수 있는 일을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외가에게서 친척들에게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좋은지를 말하고 외가의 식구들과 세겜 사람들의 동조를 얻는다. 결국 그는 바알브릿의 묘에서 은 70개를 얻어 방탄한 건달들(현대인의 성경)¹⁴¹⁾을 사서 자신의 형제들을 다 살해하고 세겜 사람들을 동원하여 왕이 된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이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망각과 자아도취에 빠져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다.

139) J. Calvin, *Inst.*, II.1.2.

140) 사 9:1-6.

141) 표준새번역은 “건달과 불량배들”이라고 번역하였다. 한글개역은 “방탕하고 경박한 유”라고 번역한다.

이처럼 현대에도 쉽게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과학계, 의학계, 법률계에서도 쉽게 인간의 망상적인 자아도취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 칼빈은 이를 발견하고 지적하고 있다.

(2) 전 인류의 파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당시의 타고난 기품을 상실해 버렸다. 그리고 인류 전체가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원죄의 전가로 인해 온 인류가 파멸의 길에 서게 된 것이다. 물론 원죄의 전가를 부정하고,¹⁴²⁾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죽음에 대해 부정하는 이들이 있지만 칼빈은 성경(창3장)에 근거하여 이를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다.¹⁴³⁾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것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다. 아담이 처음 창조를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복을 받았을 때 풍부하였고 풍성하였다. 그러나 악한 정욕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연결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불순종으로 타락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칼빈은 여기서 인간의 타락에서 주목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반역한 것은 사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진실을 멸시하고 허위로 돌아섰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라 한다.¹⁴⁴⁾ 이것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을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바로 이 죄가 원죄가 된다. 이를 최초의 죄라고 한다.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존재였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 영혼의 죽음이 되었다.¹⁴⁵⁾ 칼빈은 이 원죄의 결과에

142) 펠라기우스(Pelagius), 소기너스(Socinus), 알미니우스(Arminius), 불트만, 슐라이어 마허, 릿출 같은 이들의 주장이다.

143) J. Calvin, *Inst.*, II.1.4.

144) J. Calvin, *Inst.*, II.1.4.

145) J. Calvin, *Inst.*, II.1.5.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우주 전체에 편만한 저주는 아담의 죄에서 흘러 퍼진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퍼지더라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 형상이 그에게서 말소된 후에 이 벌-즉, 처음에 그를 훌륭하게 장식했던 지혜와 힘과 성결과 진실과 공의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무지와 무력과 불결과 허영과 불의 등의 가장 추악한 병들이 생겨난 벌-을 받은 것은 그만이 아니었다. 그는 또한 후손까지도 끌어넣어 같은 불행에 잠기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물려받은 부패이며, 이것을 교부들은 “원죄” 라고 불렀다. 여기서의 “죄” 라는 말은 이전의 선하고 순수했던 본성을 잃어 버렸다는 뜻이다-생략-그러므로 불순한 씨의 후손인 우리는 날 때부터 죄에 전염되어 있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웠고 오점이 많았다(욥 14:4).” 146)

현대에 유물론과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죽음이란 것을 소멸이라고 본다. 죽음이란 것이 소멸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모든 것은 무덤이 종착역이 되고 만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더라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죽음관이다.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하고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죽음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 때문이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은 어차피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주어지는 형벌의 대가였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⁴⁷⁾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졌고, 분명히 사후에 세계가 존재한다.¹⁴⁸⁾ 심판이

146) J. Calvin, *Inst.*, II.1.5.

147)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8) 양승훈 교수는 『기독교적 세계관』(서울: CUP, 2001), 134-135에서 죽음을 네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기독교 세계관에서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왔다고 본다.

둘째, 죽음은 소멸이 아니며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

존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칼빈은 계속하여 원죄가 모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¹⁴⁹⁾ 이 의미는 첫째, 원죄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며 둘째, 원죄는 전가되고 셋째, 원죄는 보편적이란 뜻이다.¹⁵⁰⁾

그러나 원죄의 실재성, 원죄의 전가, 원죄의 보편성은 성경이 증거¹⁵¹⁾하고 있고, 칼빈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칼빈은 죄가 전가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강조하고 있다.

“아담이 죄에 전염되었을 때에 감염이 인간성에 잠입했다고 상정하는 것은 조금도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다. 썩은 뿌리에서 썩은 큰 가지가 나왔으며 여기서 나온 작은 가지에 부패가 전달되었다. 이와 같이 부모에게서 자녀가 부패하였고, 자녀는 다시 그 후손에게 대대로 병을 옮겨 주었다. 바꿔 말하면, 아담에게서 시작된 부패는 선조로부터 후손에게 전달되어 끊임없이 흘러간 것이다.”¹⁵²⁾

칼빈의 이 죄의 전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3절에서 더 확실하게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셋째, 죽음은 절망이 아니며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되었다.

넷째, 죽음 후의 세계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며 이 땅 위에서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49) J. Calvin, *Inst.*, II.1.6.

150) 현대에 원죄는 상징적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다. 그래서 원죄의 전가를 부정해 버린다. 예를 들면 칼 바르트(Karl Barth)는 역사적인 인간의 타락을 부정해 버린다. 뿐만 아니라 에밀 부룬너(E. Brunner)역시 인간의 타락의 역사성을 부정한다. 복음서의 비신화론을 주장한 볼트만(R. Bultmann)은 전통적인 원죄론은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서 현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기에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도 인간 타락의 역사성을 부정해 버린다. 이러한 원죄의 실재성을 부정해 버리는 학자들은 로마 가톨릭에서도 나왔다. 배네스테(A. Vanneste)와 바우만(V. Baumann)같은 이들이다.

cf. A. A. Hoekema, 『개혁주의 인간론』, 242-245.

151) 롬 5: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52) J. Calvin, *Inst.*, II.1.7.

“그들은(아담과 하와) 전 인류의 뿌리였기 때문에, 보통 생식방법으로 인한 그들의 후손에게 이 죄의 책임이 돌려지며(창 1:27-28; 2:16-17; 행 17:26; 롬 5:12, 15-19; 고전 15:21-22, 45, 49), 죄와 부패한 본성으로 인한 그들과 같은 죽음이 전해졌다(시 51:5; 창 5:3; 욥 14:4, 15:14).”¹⁵³⁾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형벌은 죽음이란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 죽음이란 도덕적 및 신체적인 죽음이다. 새로 창조되는 모든 영혼이 존재하게 되는 처음부터 생명을 주는 성령의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다.

(3) 본성의 부패인 원죄

이신론자인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는 윤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¹⁵⁴⁾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죄가 아니라 철학적인 추상의 영원한 원인에 대한 죄다. 죄라는 단어도 천사가 되기를 바라고 신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가지고 온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죄의 개념을 거부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였음을 거부한다. 원죄의 전가를 거부하는 것이다.

칼빈은 원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기독교강요』에서 말하고 있다. 원죄는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⁵⁵⁾ 그것은 영혼의 모든 부분에 만연되어 있

153) A. A. Hodge,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해설』, 김종흡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146.

154) James W. Sire,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김현수 역 (서울: IVP, 2002), 68.

“모든 자연은 그대가 모르는 예술이며, 모든 우연은 그대가 볼 수 없는 방향성이며, 모든 불일치는 그대의 이해를 넘어선 조화이며, 모든 부분적 악은 보편적 선이다. 자만심이나 잘못되기 쉬운 판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명백한 진리가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옳다.”

155) J. Calvin, *Inst.*, II.1.8.

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든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19에 나타난 “육체의 일” (τὰ ἔργα της σαρκός, ‘육체의 행위’ 혹은 ‘몸의 행위’)을 하게 만든다.¹⁵⁶⁾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은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이 부패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새로운 열매(육체의 일)을 맺는다.¹⁵⁷⁾ 즉 원죄는 본성을 부패하게 만든다. 그로 인해 영혼과 육체 모두가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죄는 인간의 전체를 전복시킨다.¹⁵⁸⁾ 죄가 모든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점령하고 말았다. 교만이라는 것이 인간의 전체를 오염시키고 인간을 어리석은 짓을 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칼빈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는 인간 전체가 마치 홍수를 만난 듯이 머리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압도되어 죄를 면한 부분은 하나도 없으며,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은 모두 죄로 돌려야 한다는 것만을 간단히 시사 하고자 한다.” 고 묘사한다.¹⁵⁹⁾

원죄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 즉 인간 전체를 부패하고 오염시켰다. 그래서 어느 부분 하나도 온전한 부분이 없으며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힘이 없는 것이다. 펠라기우스 파의 원죄론에 의하면 각 사람은 그가 원할 때 언제든지 범죄하고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¹⁶⁰⁾ 즉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타락하거나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죄를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하여 원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거부하고 있다. 아무리 인간의 입장을 변호하고 인간의 전적부패를 거부하려고 해도 인간의 삶을 보면 전적타락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염되고 부패한 것이다. 칼빈은 그래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타락하고 더러운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하여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돌리는 이들을 공격한다.¹⁶¹⁾

156) 갈 5:19-21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20)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21)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157) 이것을 칼빈은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꽃과 불똥이 튀어나오며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는 것과 같다” 고 표현하고 있다. cf. J. Calvin, *Inst.*, II.1.8.

158) J. Calvin, *Inst.*, II.1.9.

159) J. Calvin, *Inst.*, II.1.9.

160) A. A. Hodge, 『하지조직신학: 인간론』,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2), 96.

하나님께서 인간을 미워하시는 것은 인간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미워하시는 것이다.

아담의 원죄는 이렇게 인간 전체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인간을 죽은 존재로 만들었다. 칼빈은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어느 부분 하나도 온전한 부분이 남아 있지 않다. 모두 부패하고 더러워졌다. 그래서 스스로는 회복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2. 노예의 신분

칼빈은 『기독교강요』 II. 2장과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음을 강조한다.¹⁶²⁾ 죄가 인간에게 전가되면서 인간은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되고, 죄는 모든 인류 전체와 각 개인에게 구석구석 미쳤다. 그래서 모든 자유를 상실하게 되고, 노예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큰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만족과 작은 공로라도 생기면 자신에게 돌리는 자기중심적 태도이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하면 그것이 마치 자신이 잘나서 행동한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에게 공을 돌린다. 자기만족에 빠진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타락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처사이며, 노예 신분을 망각한 처사이다.

(1)인간 의지의 자유

161) J. Calvin, *Inst.*, II.1.11.

162) J. Calvin, *Inst.*, II.2.

칼빈이 살던 시대에 철학자들은 의지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신적인 빛이 편만해서 가장 효과적인 의견을 알리며 우월한 힘이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명령을 할 수 있는 이성이 지성 안에서 등불과 같이 모든 생각을 비추며, 왕과 같이 지배한다고 상상하였다.¹⁶³⁾ 이 철학자들의 요지는 결국 의지가 독자적인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성에 복종하거나 감각에 몸을 팔아 더럽히는 것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현대에도 불신자들은 다수가 인간이 선행과 악행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자신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그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선행한 것이라 본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두가 의지의 자유를 인정하는데서 나오는 결과이다.

칼빈은 교회 역사가들 가운데서도 철학자들처럼 의지의 자유를 강조한 이들이 있다고 했다. 그들이 이렇게 철학자들의 주장에 동조한 이유는 당시 인간의 무력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철학자들의 조롱을 받았고, 육체에 나태할 기회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¹⁶⁴⁾

오리겐은 자유의지를 선악을 구별하는 이성의 능력이며 선악을 선택하는 의지의 능력이라 했다. 또한 어거스틴도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선을 택하며 은총이 없을 때에 악을 선택하는 이성과 의지의 능력이라고 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선택의 능력”이라고 불렀다.¹⁶⁵⁾

칼빈은 자유의지론이 하나님의 영예를 빼앗을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했다.¹⁶⁶⁾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스스로 가로채는 인간은 바로 사탄이다. 원죄로 인해 인간이 소유한 의지는 본성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사악한 욕망에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일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이 구분되는 이성을 인간에게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이 이성은 바른 것을 판단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가능하다.¹⁶⁷⁾

163) J. Calvin, *Inst.*, II.2.2. cf. 칼빈은 철학자 Platon과 Aristoteles의 책을 인용하고 있다.

164) J. Calvin, *Inst.*, II.2.4.

165) J. Calvin, *Inst.*, II.2.4.

166) J. Calvin, *Inst.*, II.2.10.

167) J. Calvin, *Inst.*, II.2.20.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인간은 암흑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은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임의로 선과 악을 판단할 때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타락한 이성을 가진 인간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의지는 선을 사모할 수 없다.¹⁶⁸⁾

결론은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는 은혜를 얻지 못할 것이며 은혜에 의해 자유를 얻는다. 의지는 남아 있다. 하지만 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하나님에게 전향될 수 없고 의지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은혜를 통해서만 행할 수 있다.¹⁶⁹⁾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이를 조금 더 확대 정리하고 있다. ¹⁷⁰⁾

“제 2 절 사람이 무죄했던 상태에서 하나님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을 의지할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는 자유의 능력을 소유했었으나 이와는 정반대의 가능성도 소유했었으므로 그는 타락하고 말았다(창 2:16,17; 3:6).

제 3 절 사람이 타락해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 구원을 가져올 그 어떤 영적 선에 대한 그 어떤 의지능력도 상실하고 말았다(롬 5:6; 8:7; 요 15:5). 따라서 인간은 자연인이 되었으므로 저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등을 돌려뒀고 죄 가운데 죽은 상태에 있으므로 자신의 의지 능력으로는 결코 선으로 돌아설 수 없게 되었고 이 선을 위하여 그 어떤 준비 작업도 할 수 없게 되었다(롬 3:10,12; 엡 2:1,5; 골 2:13; 요 6:44,65; 고전 2:14; 딤후 3:3-5; 엡 2:2-5).”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의 선한 의지는 오염되고 부패하여 노예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자신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그것으로 선을 택할 수 없게 되었고 악을 선택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2) 자유의지 옹호자들에 대한 칼빈의 답변

칼빈은 『기독교강요』 II권 5장에서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자들에 대하여 논박하고

168) J. Calvin, *Inst.*, II.2.27.

169) G. W. Bromiley, 『역사신학』, 326.

170) A. A. Hodge,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해설』, 212-213.

있다. 첫 번째 논법은 필연적인 죄는 죄가 아니고 자원적 죄는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펠라기우스가 대표적인 주장자이다. 사람이 반드시 죄를 지으며 악한 일 밖에 결심할 수 없는 것은 창조에서는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책임을 돌릴 수 없다. 그것은 인간성의 부패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몫이다. 필연적으로 죄는 짓는 사람은 여전히 자원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분명하다.¹⁷¹⁾

두 번째 논법은 상벌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덕행과 죄악이 모두 의지의 자유 선택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에게 벌이나 상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자유의지 옹호론자들이 주장한다. 칼빈은 인간이 죄책의 근원이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은 공정한 것이라 답한다.¹⁷²⁾ 그러면 상은 무엇인가? 바울은 인간의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빼앗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하고 여러 가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고 마치 우리 자신의 덕행인 듯 그것에 상을 주시는 것이다.

세 번째 논법은 선악의 구별이 전폐될 것이라는 점이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선악의 구별은 불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을 가지고 나온다. 모든 사람이 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유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같은 병을 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심판으로 그냥 버려두시는 사람들은 부패한 가운데 쇠잔하며 소진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은혜는 무차별적으로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만 주신다.¹⁷³⁾

네 번째 논법은 모든 충고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복종하는 능력이 죄인에게 없다면 충고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율법의 교훈들을 사람의 힘을 표준으로 측정하지 않으시고 바른 일을 명하신 곳에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풍부하게 주신다고 반박하였다.¹⁷⁴⁾

칼빈은 더 나아가 은총이 인간에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의 예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먼저 주께서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신 때가 많다고 한다. 그 예로 욥 2:12; 겔 18:30-32; 호 14:2-3을 들고 있

171) J. Calvin, *Inst.*, II.5.1.

172) J. Calvin, *Inst.*, II.5.2.

173) J. Calvin, *Inst.*, II.5.3.

174) J. Calvin, *Inst.*, II.5.4.

다. 둘째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의 뜻을 굳게 잡고 준행하라,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명령을 하신다. 셋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신자들에게 했다고 말하는 권고 즉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행 13:43)는 것이다.¹⁷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인간의지 스스로 이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성령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칼빈은 회개의 문제도 가지고 온다. 회개 역시 하나님과 사람이 분담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즉 1:3¹⁷⁶⁾을 근거하고 하여 회개가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한다. 즉 이 구절의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의미는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회개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번영을 주심으로 백성을 친절하게 대해주시심을 입증하신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¹⁷⁷⁾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칼빈은 『기독교강요』 II권 5장 한권 전체를 사용하여 반박하고 있다. 자유의지는 원죄로 인해 상실되어 버렸다. 의지는 결국 선이 아니라 악을 선택하도록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런 노예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오류다. 불가능하다. 이것이 칼빈의 입장이고 그의 사상이 이어 받은 개혁신학의 입장이다.

3. 부패한 인간 본성에서의 죄악된 행동들

현대에 많은 부분에서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 의한 죄악의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로 동성애 그리스도인 운동은 성경의 사랑에 대한 원리를 차용해 주장되고 있다. 1960년대 신도덕(new morality) 혹은 상황윤리에서 사랑은 모든 관계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주장되었다. 프렌드(Friend) 교도의 보고서인 “성에 관한 퀘이커 교도의 견해에 관하여” (*Toward a Quaker View of Sex*, 1963)에서는 사람들은 동성연애에 대해 원손잡이에 대해서와 같이 개탄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175) J. Calvin, *Inst.*, II.5.8.

176) 즉 1:3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 . .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177) J. Calvin, *Inst.*, II.5.9.

분명히 문제되는 것은 관계의 본성과 성질이라고 했다.

감리교회는 1979년 사회책임부에서 “인간의 성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해” (A Christian Understanding of Human Sexuality)란 보고서에서 동성연애 행위는 본질적으로는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유는 어떤 동성애적 관계의 성질도 이성애적 관계에 적용되는 같은 근본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동성연애 남성이나 여성의 경우 사랑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영원한 관계는 그들의 성을 나타내는 기독교적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했다.¹⁷⁸⁾

이러한 윤리적인 현상들은 바로 칼빈이 지적한 부패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II권 3장에서 부패한 본성에서의 최악된 행동들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은 전적으로 욕이다.¹⁷⁹⁾ 요한복음 3:6에서 말하는 것처럼 “욕으로 난 것은 욕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간의 전체를 묘사하는 것이라면 인간은 분명히 하나의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공정한 법에 찬동하지 않고 죽음의 원인 외에는 아무것도 낳을 수 없을 만큼 사악하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욕이다. 영적인 것은 중생하지 않고는 결코 가질 수 없다.¹⁸⁰⁾

사람이 부패한 것을 칼빈은 로마서 3장에 근거를 둔다.¹⁸¹⁾ 이것은 사람에게 아무 의도 아무 성실이나 순결과 총명이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에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증거가 총명이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이 결함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제시하는 대로 발이 피 흘리는 데 빠른 사람들(롬 3:15), 손이 도둑질과 살인으로 더럽혀진 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인 자, 혀로 속임을 베푸는 자,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는 자(롬 3:13), 행위가 무익하고 악하고 썩었고 살인적인 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가장 깊은 마음 속이 썩은 자, 눈이 술책만 찾는 자, 욕설할 생각이 간절한 자, 모든 부분이 무한한 사악을 행할 자세인 자(롬3:10-18)들이 바로 부패한 인간들이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면 정결하게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기에 대한 칼빈의 대답은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지 않고 다만 억제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다.¹⁸²⁾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178) John R. W. Stott,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 (서울: CLC, 1997), 428-429.

179) J. Calvin, *Inst.*, II.3.1.

180) J. Calvin, *Inst.*, II.3.1.

181) 롬 3:10-11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패악한 인간성을 제어하셔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으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인간성을 내면적으로 정결하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직이란 선물을 주신다. 그러나 그것이 부패한 인간성을 회복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직을 주셔도 인간의 본성은 부패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¹⁸³⁾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이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칼빈은 없다고 말한다.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증거는 구원의 사업에서 나타난다. 구원사업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협력적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다.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협력할 능력이 있는가? 의지가 없는가?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와야 한다. 하나님의 활동과 역사는 결국 인간이 더 이상 첨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잘 아는 대로 견인(堅忍)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시는 일이다.¹⁸⁴⁾

여기에 인간이 보충하거나 첨가할 것이 없다. 타락한 인간이 견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전적인 부패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반대론자들은 대부분 우리가 처음 은총을 받은 후에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그 뒤에 오는 은총과 협력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내가 대답을 한다면 그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일단 의에 복종하게 된 다음부터 우리는 자기 힘으로 전진하며 은총이 하는 일을 따르는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확실히 하나님의 은총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그 은총을 따르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준비 태세는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서나 시종 일관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처음에 복종하는 심성을 만드시고, 다음에 그것을 함양하며 그 지조를 더욱 강화시켜 견인불발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¹⁸⁵⁾

182) J. Calvin, *Inst.*, II.3.3.

183) J. Calvin, *Inst.*, II.3.4.

184) J. Calvin, *Inst.*, II.3.11.

185) J. Calvin, *Inst.*, II.3.11.

칼빈의 주장대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서는 단 한 가지도 선행을 할 수 없고 자신의 능력, 공로로 돌릴 수 없다.

4. 그리스도 안에서만 형상 회복=구속

타락한 인류는 창조 당시의 모습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육간의 죽음,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어느 것 하나도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 인간의 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 밀어 주셔야만 한다. 즉 인간의 회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하고 있다(요 3:16).

인류 전체는 아담 안에서 망한 것이다.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시기로 하셨다. 칼빈은 이것을 중보자만이 타락한 인간을 도우신다고 밝힌다.¹⁸⁶⁾

우리 인간의 마음은 눈과 함께 어두워졌다. 그래서 참된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정도로 둔해지고 어두워졌다.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도 뒤틀리고 오염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탈취할 정도로 악하게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회복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한다(고전 1:21). 즉 전도의 미련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권고이다. 십자가의 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길만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중보자를 떠나서

186) J. Calvin, *Inst.*, II.6.1.

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롬 1:16; 고전 1:24).¹⁸⁷⁾

구약 시대에는 어떤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 구약시대에도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모두 타락한 존재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있어야 했다. 구세대주의자들은 7세대로 나누고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랐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구약의 믿음과 소망은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¹⁸⁸⁾ 구약에서도 신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의 기치가 예시되었다.¹⁸⁹⁾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구약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것을 예시하고 있다. 구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보아야 한다.¹⁹⁰⁾

신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으라고 명령하셨다(요 14:1).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완전히 굳은 믿음을 가진 분이 중보자로서 사이에 있지 않으면 믿음은 점점 사라지며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너무崇高하고 높으시기 때문에 땅에서 기어다니는 구더기와 같은 죽을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187) J. Calvin, *Inst.*, II.6.1.

188) J. Calvin, *Inst.*, II.6.3.

189) 왕하 8:19 “여호와께서 그 중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다.”

사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 55:3-4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4)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렘 23:5-6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6)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슌 9:9-10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시 28:8-9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9)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190) J. Calvin, *Inst.*, II.6.4.

도달할 수 없다.

골 1:15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이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세상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믿게 하셨다.¹⁹¹⁾

칼빈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받는 길,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성경의 관점이다.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며, 형상 회복에 있어서 어떠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제 3 절 구속 받은 후 인간

제 3 절에서는 구속을 받은 후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다룰 것이다. 칼빈은 구속 받은 후의 인간에 대하여 『기독교강요』 III권에서 다루고 있다. 구속받은 인간답게 사는 생활, 내세에 대해 명상하는 인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기도 생활하는 인간에 대하여 칼빈이 말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회복된 존재, 그리고 성화되어가는 존재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칼빈의 정리를 보도록 하겠다.

1. 구속받은 인간답게 사는 생활

191) J. Calvin, *Inst.*, II.6.4.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택자들(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성화되어 간다. 192)

칼빈은 이것을 생활에서 찾는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동기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193)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인간을 화해시키셨다(고후 5:18).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위하여 형상을 인치시고(히 1:3),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되도록 하셨다. 그리스도를 성도들의 모범으로 세우시고 그 모범을 생활에서 실천해 나가게 하셨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에 지표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구원받은 인간이 의에 몸을 바치지 않는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며 사악한 행위이고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셨다. 그런데 정결한 삶을 살지 않고 죄악에 다시 더러워지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은 새롭게 다시 지음 받은 존재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빛나도록 주의하고 추악한 죄로 더럽혀서는 안되는 것이다(고전 3:16, 6:19; 고후 6:16).

우리의 영혼과 몸은 하늘의 불멸과 퇴색하지 않는 면류관을 받기로 정해졌다. 우리는 우리의 영육을 주님의 날까지 순결 무흠하게 보존하도록 힘있게 노력해야 한다.194)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마음의 문제이다. 입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영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즉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새로워야 한다. 마음이 바르고 정결하다면 입으로 하는 말이나 생활은 자연 순결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 말한다(엡 4:24).

그리스도인은 생활의 면에서 완전한가? 완전주의를 부르짖는 이들은 참 그리스도인은 생활이 완전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성화의 두 국면인데 바로 단회적(결정

192)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193) J. Calvin, *Inst.*, III.6.3.

194) J. Calvin, *Inst.*, III.6.3.

적)이면서 동시에 불완전적(점진적)이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성화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들 속에 거하시는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계속적 인격적이고 진정한 성화를 거듭” 한다고 한다. 195)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매우 약하다. 비틀거리며 절름거리며 기어갈 뿐이다. 움직임의 속도가 아주 느리다.196) 그래서 자신의 미미한 능력에 따라서 앞으로 나갈 때에 어려움과 낙심이 밀려온다. 문제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 육체의 연약을 벗어나고 그리스도와 완전한 친교에 들어가는 때까지 한 걸음씩 나가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2. 내세에 대해 명상하는 인간

내세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현실주의자들이다. 현실 속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 생명이 있는 동안에 마음껏 즐기며 살면 된다는 사고를 가진다. 또 다른 이들은 내세지향주의자들이다. 이들은 현실을 빨리 떠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세상을 증오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세를 명상하며 현실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195) A. A. Hodge,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해설』, 13장.1-2절.

“13장 1절. 효과적으로 부름받고 중생한 사람들 속에는 새 마음과 새 정신이 창조된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들 속에 거하시는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계속 인격적이고 진정한 성화를 거듭한다. 몸 전체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몸의 욕정들은 점차 약화되고 죽고 나아가서 이들은 온갖 구원의 은혜를 얻어 참된 거룩을 실천하도록 자극받고 강화되어 간다-이하생략.

2절. 이 성화는 평생을 통하여 전인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성화는 이생에 있어서 불완전하다. 그러나 전인의 구석구석에는 부패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다. 따라서 영과 육체, 혹은 육체와 영은 계속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다.”

196) J. Calvin, *Inst.*, III.6.5.

칼빈은 그리스도인은 내세를 명상한다고 했다. 칼빈은 현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어떤 환난이 우리를 압박하든 간에 우리는 현세를 무시하는데 익숙해지며 그렇게 됨으로써 내세를 활발하게 명상하기 위한 그 목적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의 본성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동물적인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우리가 이 애착심에 너무 오래 잡혀 있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내시며 우리의 태만을 없애버리기 위해 가장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197)

타락 후에 인간들은 현세에 목숨을 걸고 집착하기 까지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현세는 불안하다. 그 자체만 본다면 불안, 동요, 불행이 무수히 많이 있고 순수한 행복은 없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며 불완전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훈련을 통해 하늘을 보아야 한다. 칼빈은 현세 생활에서 우리가 바라며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분투, 노력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198)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보아야 하는가?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세를 무시하더라도 그것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일이 없다고 습관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199) 왜냐하면 현세는 하나님이 주신 복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축진하는데 현세는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세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쓸 사람들은 지상의 생활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싸우고 있는 것이다.

현세를 살아가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 이것을 현세의 삶에서 얻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의 생활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과거에 많은 이들은 이 세상에서 영생하기를 바랐다. 생명을 늘리기 위해 여러 방법

197) J. Calvin, *Inst.*, III.9.1.

198) J. Calvin, *Inst.*, III.9.1.

199) J. Calvin, *Inst.*, III.9.3.

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세상을 다 떠나고 말았다.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동경을 가진다. 문제는 ‘그 영생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진정한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영생이다. 이 지상에서의 영생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상에서의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영생을 얻는 길은 지상에는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요 17:3).

칼빈은 내세에 대한 열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준다고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도살당할 양처럼 살아간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지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다면 악한 사람들의 부귀, 그들의 평화, 호화스런 재물, 온갖 환락, 이들의 사악한 행동으로 당하는 핍박, 고난, 모욕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²⁰⁰⁾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나라로 신실한 백성을 영접하실 날이 오기 때문이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눈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며(계 7:17),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행복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이며 위안이며 위로가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3.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인간

구원받은 성도 즉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양심의 자유와 무해 무익한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가진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III권 19장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양심의 자유, 무해 무익한 것들로부터의 자유, 자유와 건덕, 양심의 자유와 국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0) J. Calvin, *Inst.*, III.9.6.

(1) 율법으로부터의 자유²⁰¹⁾

먼저 칼빈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칭의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버리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즉 행위를 배제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율법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유도하고 교훈하고 충고하고 권고하기 때문에 경건의 실천으로 삼아야 한다.

(2) 양심의 자유²⁰²⁾

둘째는 바로 양심의 자유이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자유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우리 영혼의 다른 감정과 생각을 제거하고 욕망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의 율법 하에서는 인간이 율법의 강요를 받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제 율법의 강요를 받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율법의 준엄성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응답하고 교훈을 따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남은 죄에 대하여 고민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롬 6:12).

201) J. Calvin, *Inst.*, III.19.2.

202) J. Calvin, *Inst.*, III.19.4.

(3) 무해 무익한 것들로부터의 자유²⁰³⁾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해하고 무익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미신과 여러 풍습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바울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에는 속되니라” 고 한다(롬 14:14).

자유가 하나님 앞에서 근거가 있다는 확신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면 외적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미신적인 생각이 장애물을 그리스도인 앞에 놓게 된다면 그 자체가 정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더러운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탐식과 사치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악용하는 경우이다.²⁰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영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치를 누리고, 호화스런 연회, 몸치장, 대저택, 호화 호식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법칙은 바울의 삶에서 발견해야 한다.²⁰⁵⁾

(4) 자유와 건덕(健德)²⁰⁶⁾

다음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연약한 이들을 해하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다. 자유를 남용하여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든 것, 형제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203) J. Calvin, *Inst.*, III.19.7.

204) J. Calvin, *Inst.*, III.19.9.

205) 빌 4:11-12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206) J. Calvin, *Inst.*, III.19.10.

불가하다고 지적한다. 무분별하게 자유를 남용하는 것들은 결국 다른 형제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연약한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⁰⁷⁾

바울은 이것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였다.²⁰⁸⁾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바르게 행사해야 한다. 그것으로 남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문제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를 우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웃 사랑을 핑계로 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서 이웃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5) 양심의 자유와 국가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설명하면서 양심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한다.²⁰⁹⁾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를 잊어서는 안되며, 양심도 받은 유익을 빼앗겨서는 안된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얻은 것을 경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자유를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이

207) J. Calvin, *Inst.*, III.19.10.

208) 롬 14:13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롬 15:1-2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고전 8:9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전 10:25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전 10:29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고전 10:32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갈 5: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209) J. Calvin, *Inst.*, III.19.14.

고, 동시에 인간으로 세속적인 나라에 속한 존재이다. 전자는 마음 속에 있고 후자는 외면적 행동을 규제한다. 전자는 영적인 것이고 후자는 정치적인 나라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인간 사회의 법에 불복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바울은 벌에 대한 두려움 뿐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정부에 복종하라 것을 명령하고 있다.²¹⁰⁾

칼빈은 양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

“사람이 마음과 이해력으로 사물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며, 그 사물을 “안다”고 하는 것이 “지식”이란 말의 유래이다. 그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일종의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감각이 사람에게서 결합된 증인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당할 죄를 감추지 못하게 할 때에 이 감각을 “양심”이라고 부른다. 양심은 사람이 마음 속에 아는 것을 숨기지 못하게 하며 도리어 그것을 추궁해서 드디어 유죄를 선언하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일종의 중간적 존재이다. 바울도 양심을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라고 말했다(롬2:15-16). 말하자면 단순한 지식이 사람 속에 숨어 살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끌어가는 이 지식은 일종의 보호자이다. 즉 사람의 모든 비밀을 찾아내서 하나도 흑암 속에 묻혀 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명된 보호자이다.”²¹¹⁾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피흘려 구속하시고 사신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정죄와 하나님의 정죄의 진노, 도덕적인 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서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남이다.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남과, 하나님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하나님에 대하여 노예적 두려움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사랑과 자발적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유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양심

210) 롬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롬 13:5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211) J. Calvin, *Inst.*, III.19.15.

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은 양심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양심의 자유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섬기라는 의미이다.²¹²⁾

세속 나라의 권세들과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는 서로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보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빙자해 합법적인 권세나 권세의 행사에 반대하는 것은 정부나 교회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믿음과 예배에 대하여 기독교의 원칙과 경건의 권세에 반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서로 상보적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서로 상대적 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신앙의 자유와 세속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목적과 제한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의 제한과 공동체를 이루는 다른 이들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에서 제한을 가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유는 바로 사랑의 자유이며 섬김의 자유이다.²¹³⁾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 동시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4. 기도생활을 하는 인간

조직신학에서 기도는 은혜의 방편으로 다룬다. 개혁과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C. 핫지는 말씀과 성례,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 말한다. 그리고 맥퍼슨은 말씀, 성례, 교회,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 말한다. 여기에 L. 벌코프는 반대를 한다. 그는 말씀과 성례만을 강조하여 그 외의 것들을 제외시킨다.²¹⁴⁾

212) A. A. Hodge,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해설』, 20장.3절.

213) cf. A. A. Hoekema, 『개혁주의 인간론』, 399-400.

214) cf. L. Berkhof, 『조직신학(하)』, 권수경·이상원 공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그러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대요리문답 154²¹⁵⁾와 소요리문답88²¹⁶⁾은 기도를 포함시키고 있다. 박형룡 박사도 “말씀과 성례, 기도는 성령이 신앙을 공작하시며 강화하심에 통상으로 사용되는 방편들이” 라고 했다.²¹⁷⁾ 칼빈도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그리스도인은 이것(기도)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했다.²¹⁸⁾

(1)기도의 본질인 믿음

칼빈은 믿음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게 하고 모든 기대가 그를 의지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밀착되며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된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도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일들을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는 그분의 섭리를 기원한다. 또 약하고 쓰러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세우주시는 힘과 죄에 놀려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은혜주심을 기원한다. 따라서 우리의 양심에 평화와 안식이 온다.²¹⁹⁾

기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본질로 삼는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1994), 866.

215) "대요리 문154. 그리스도께서 자기 증보의 혜택을 그 몸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은 무엇인가? 답: 그리스도께서 자기 증보의 혜택을 그 몸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 또는 통상한 방편은 그의 모든 규례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 및 기도이다. 이 모든 것은 택함을 입은 자들의 구원에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마 28:19-20, 행 2:42, 46-47)."

216) "소요리 문88.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마 28:19-20, 행 2:41-42)."

217) 박형룡, 『교의신학 VI』 (서울: 한국기독교교연구원, 1977), 206.

218) J. Calvin, *Inst.*, III.20.

219) J. Calvin, *Inst.*, III.20.2.

(2)기도해야 할 이유

칼빈은 기도해야 할 이유를 6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성을 다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 일듯 하기 위해서.

둘째, 하나님께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셋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넷째,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섯째,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섯째,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²²⁰⁾

즉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큰 유익을 얻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3)기도를 통한 하나님 경외²²¹⁾

기도의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정신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 즉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산만한 생각으로 혼란스런 상태에서 기도를 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 의존과 경외의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²²²⁾

220) J. Calvin, *Inst.*, III.20.3.

221) J. Calvin, *Inst.*, III.20.4.

222) J. Calvin, *Inst.*, III.20.4.

기도를 하면서 경솔하고, 무례하고, 감히 하나님께 졸라대고,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분께 대한 경외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사도 요한은 기도에 대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고 한다(요일 5:14).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신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고무하셔서 기도를 이루도록 힘을 주신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의 노력을 방해하거나 정지하지 않으신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확신과 소원과 탄식을 일으키신다.

(4)기도를 통한 회개²²³⁾

기도의 법칙은 회개하는 마음과 자신의 부족을 느끼며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드릴 때에 항상 자신의 무력을 느끼고 구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진심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을 기도에 첨가해야 한다.²²⁴⁾

기도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경배하는 사람들만이 바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된다. 기도하려고 준비할 때 악한 행실을 회개하고 약하고 무능한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야 한다.

(5)기도를 통해 겸손히 용서를 구함²²⁵⁾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비를 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포기한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족을 알고 겸손하게 용서를 비는

223) J. Calvin, *Inst.*, III.20.6.

224) J. Calvin, *Inst.*, III.20.6.

225) J. Calvin, *Inst.*, III.20.8.

기도를 하게 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 기도를 한다.²²⁶⁾ 이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이다.

(6)기도를 통해 확신있는 소망을 가짐²²⁷⁾

인간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망과 믿음은 이 공포를 물리친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하여 공포심을 물리칠 수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²²⁸⁾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주신 후에야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말이다.

(7)중보자 그리스도²²⁹⁾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이름이나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

226)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교훈해주셨다.

눅 18:9-14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나는 이레에 두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227) J. Calvin, *Inst.*, III.20.11.

228) J. Calvin, *Inst.*, III.20.16.

229) J. Calvin, *Inst.*, III.20.17-20.

시기 때문이다(딤후 2:5; 히 8:6, 9:15).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말씀해주셨다(요 16:26). 영원한 분, 불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할 특권이 있는 것이다.²³⁰⁾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기도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이다. 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점검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제 4 절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간

제 4 절에서는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해지는 모습을 다룰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인간은 성화의 단계에 있다. 그 단계를 거쳐 영화의 상태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다.

1.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인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칸트(Kant)는 지상명령으로부터 미래에 모든 악을 시정해 줄 최고의 재판장을 추론했다. 즉 악을 제거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았다. 셸링(Friedrich Wilhelm Joseph von Schelling)은 심판에 대해 현존하는 내재적 과정으로 간주하였다. 폰 하르트만(Eduard Von Hartmann)은 심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졌다.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자들은 심판을 여러 번에 걸쳐 주어

230) J. Calvin, *Inst.*, III.20.17-20.

지는 것으로 본다.²³¹⁾

(1)선택된 자들=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과 유기된 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선택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멸망으로 급행하지 않는다(요 17:12).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믿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며, 그리스도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며 목자가 되신다.²³²⁾ 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요 3:16, 6:39).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영생의 판결을 받게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 교제는 영생의 핵심이다(계 21: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 안에서 충만한 만족을 얻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2)유기된 자들=불신자들

유기된 자들 즉 버림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에 대한 계획도 심판으로 시

231) L. Berkhof, 『조직신학(하)』, 1005.

심판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다.

a. 형이상학적 심판(슐라이어마허, 기타 독일 학자들)은 심판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세상과 교회의 최종적 분리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한다.

b. 내재적 심판(현대자유주의자들)은 심판이 순전히 내재적이어서 세계의 도덕적 질서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보상과 형벌의 문제를 바라만보고 시인하지만 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c. 현대천년주의자들은 심판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파루시아 즉 주님의 강림시에 부활해 살아있는 성도들의 심판이 있다. 둘째, 대환난 직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때에 있을 심판이 있다. 셋째, 계 20:11-15에 묘사된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받는 악한 죽은 자들의 심판이 있다.

232) J. Calvin, *Inst.*, III.24.7.

행하신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빼앗으시고, 말씀의 선포를 통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지각을 마비시키신다. 듣는 능력을 빼앗으신다.²³³⁾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죄인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상태이고, 죄가 완전히 지배하는 데에서 오는 생활의 끝없는 혼란, 육신과 영혼의 극심한 고통과 고난, 양심의 가책과 고뇌, 절망, 비참, 이를 가는 주관적인 형벌들이 주어진다(마 8:12; 막 9:43-44, 47-48; 눅 16:23, 28; 계 14:10, 21:8).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될 것이다.

2.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인간

칼빈은 『기독교강요』 III권 제일 끝부분인 25장에서 최후의 부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여기서 칼빈은 부활의 소망을 말한다. 부활의 소망이 가진 중요성을 강조한다.

(1)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낙심과 한숨을 가져다준다. 이 세상에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후회와 실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물론 이것을 불신자들이 보고 비웃거나 조롱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버려서는 안된다. 우리의 마음을 땅 위의 일들에서 해방시켜 멀리 있는 하늘에 붙들어 매어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바르게 유지될 수 없다. 복된 부활을 끊임없이 명상하는 습관이 생긴 사람만이 복음의 유익을 완전히

233) J. Calvin, *Inst.*, III.24.12

받는 것이다.²³⁴⁾

(2) 하나님과의 연합을 사모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사모하게 된다. 그것만이 부활의 소망에 힘을 주기 때문이다.²³⁵⁾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고 경주를 하는 존재들이다. 이 경주에서 용기를 잃지 말고 하늘의 있는 것을 바라고 나가야 한다. 아담의 타락은 자연의 모든 것을 깨고 완전한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사람의 죄로 인해 피조물들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 그 자연들이 탄식하고 고통한다고 바울이 말한다(롬 8:22).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의 몸을 구원해주셨다(롬 8:23).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이미 사실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우리의 부활이 완성될 때까지 힘을 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있을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연합을 사모해야 한다.

(3) 몸의 부활

어떤 이들은 몸의 부활을 거부한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한다. 그러나 칼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원형으로 하여 몸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²³⁶⁾

“완전히 썩어버린 몸이 때가 오면 드디어 부활하리라는 것은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영혼 불멸을 말한 철학자는 많아도 육신의 부활을 인정한 사람은 적다. 이런 견해에 대한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으나 이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이 일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234) J. Calvin, *Inst.*, III.25.1.

235) J. Calvin, *Inst.*, III.25.2.

236) J. Calvin, *Inst.*, III.25.3.

알려준다. 이 큰 장애물을 믿음의 극복할 수 있도록 성경은 두 가지 도움을 준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비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이다.”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눈앞에 그려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시작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부활에 참여할 것을 의심하지 않고 이 보증으로 만족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아 계신다고 말한다(빌 3:20-21).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한 번에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동일한 역사를 보여주시려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골 3:4).

몸의 부활은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²³⁷⁾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고서는 몸이 부활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육체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혼은 불멸하게 된다. 어떤 이들은 전인이 죽은 것처럼 몸도 영혼도 죽고 다시 둘 다 부활할 것이라고 한다.²³⁸⁾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몸을 집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죽을 때에 이 집을 떠난다고 말한다.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한다(고후 5:1).

(4) 현세에 입고 있는 몸으로 부활

237) J. Calvin, *Inst.*, III.25.4.

238) 칼빈은 영혼 수면설을 공격하면서 교황 요한 XXII(1316-1334)의 이단설에 대해 언급한다. 이 교황은 성도들의 영혼은 부활하기까지는 하나님을 뵈지 못한다고 했고, 1333년에 파리 신학자들이 이 주장을 단죄하였다. cf. J. Calvin, *Inst.*, III.25.6. 각주 12번 참고바람.

“Calvin's preface to *psychopannychia*. In attacking the doctrine of "the sleep of souls," he refers to the heresy of Pope John XXII that the souls of departed saints are not permitted to see the Beatific Vision until the resurrection. this doctrine was condemned by the Paris theologians in 1333.”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죄로 더러워진 몸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견해가 된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고전 6:15). 우리의 몸과 영혼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영혼 뿐 아니라 육체도 주를 섬기라고 바울이 충고한다(고전 6:20).

칼빈은 고전 15:53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몸이 부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²³⁹⁾ 만약에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만들어주신다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 된다. 칼빈은 육체적 부활에 대해 성경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 여기에 명백한 이유가 나타난다. 죽음이 인간의 타락에서 생겨난 우발적인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회복은 그 죽기 시작한 육체에 속한다. 바울이 부활을 주장했을 때 아텐 사람들이 웃은 것을 보면(행 17:32), 그가 어떤 전도를 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또 그들이 웃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²⁴⁰⁾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체 그대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부활 후에 육체는 인생의 형상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²⁴¹⁾ 하나님이 지상의 각 만물에게 성질에 적응하며 창조의 목적에 이르도록 필요한 특수한 형상의 신체를 주셨다. 그 특수한 형상의 상실은 그 존재를 중지하게 할 것이다.

(5) 불신자의 부활

그러면 신자만 부활하는가? 아니면 불신자도 부활하는가? 칼빈은 이 문제를 요 5:29에 근거하여 이중부활로 설명하고 있다.²⁴²⁾

239) J. Calvin, *Inst.*, III.25.7.

240) J. Calvin, *Inst.*, III.25.7.

241) 박형룡, 『교의신학 VII』 (서울: 한국기독교교연구원, 1977), 299.

242) 요 5: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전 세계의 유업을 상실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 지체들에게 속한 것이 악인들에게도 풍부하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²⁴³⁾

악인이 우연히 부활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지금 주와 선생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억지로 끌려가더라도 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심판주 앞에 끌려가지 않으면 죽음으로 멸망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가벼운 벌이 될 것이다. 그들은 심판주에게서 완악한 죄로 벌을 받을 것이며, 끝도 한도 없는 이 벌은 그들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성경은 부활에 대하여 자녀들에게만 더 적용한 일이 많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성경은 이중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

죄인의 부활은 구속 사역을 가능하게 하였던 인간에 내린 사형 선고에 대한 집행 유예의 필연적 결과이다. 죄인의 부활은 결국 구속 사역이 아니라 주권적인 공의의 사역으로 보아야 한다. 몸과 영혼이 함께 연합한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죄인의 부활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고, 죄인의 경우는 죽음이라는 최고의 형벌이 되는 것이다(요 5:28-29).²⁴⁴⁾

제 5 절 요약 및 소결론

제 4 장에서는 『기독교강요』 I-III권에 나타난 칼빈의 인간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독교강요』는 칼빈의 사상을 집대성한 저서라 할 수 있다. 그의 인간론에 대한 접근은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성경에 근거하였다.

먼저 제 1 절에서는 창조당시의 인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인간은 창조 당시에 원초적으로 순결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고 본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 바로 그 아담은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였다. 최초의 인간의

243) J. Calvin, *Inst.*, II.25.9.

244) L. Berkhof, 『조직신학(하)』, 999.

영혼은 불멸적이고 창조함을 받은 실재였고, 오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으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전인성(全人性)을 소유한 존재였다. 또한 의지 면에서도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이 의지를 사용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던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이다.

제 2 절에서는 타락 후 인간에 대해 다루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인간은 부패하게 되었다. 이를 원죄라고 말하는데 원죄로 인해 자기 인식에 대하여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망상에 빠질 뿐 아니라 전 인류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었다. 원죄는 결국 인간의 본성을 부패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인간 전체가 부패하고 오염된 것이다.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인간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의지도 역시 노예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자발적 순종하는 인간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존재, 피하여 숨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부패한 본성은 최악된 행동들을 내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이란 전혀 행할 수 없는 악만 행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여기서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 뿐이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다.

제 3 절에서는 구속받은 후의 인간론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리스도인은 생활이 달라진다. 중생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은혜로 성화되어 간다.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변화된다. 내세에 대한 명상을 하면서 현세에 열심을 내고 내세를 소망하는 존재, 소망이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지고, 양심의 자유가 주어지며, 무해하고 무익한 것들로부터 자유가 주어진다. 동시에 자유와 건덕의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제로 남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국가에 대해 어떻게 복종할 것인지, 의무를 다할 것인지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기도생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기도는 믿음을 본질로 삼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고, 응답을 통해 큰 유익을 하나님께 받는 길이 된다. 칼빈은 기도의 법칙으로 경외, 회개하는 마음, 겸손과 용서를 비는 자세, 확신 있는 소망을 제시한다. 기도는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야 함을 가르친다.

제 4 절에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간론을 다루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과 복과 영광의 약속이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영원한

형벌의 선언이 되는 것이다. 칼빈은 최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도 다룬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부활은 하나님과의 연합이기에 이를 사모해야 한다. 또한 몸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이 현세에서의 육체가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한다. 그래서 이중부활을 칼빈은 언급하고 있다.

칼빈의 이런 인간론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그의 『기독교강요』에서는 성경구절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 성경에 기초하여 그의 사상을 전개해 나갔다. 인간론에 대한 부분들도 예외는 아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간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그의 인간론을 전개해 나갔다.

제 4 장 결론

제 1 절 요약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계시하고 있다. 여기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인간론을 정리하고 전개해 나간다. 정직하게 성경에 서서 특별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인간론을 펼쳐 나간다. 우리 개혁신학이 서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 이것이 개혁신학의 정신이다. 개혁신학은 칼빈의 정리를 기초로 하여 성경의 진리들을 더 확대하여 나간다.

제 1 장에서는 본 논문의 문제제기, 연구목적과 연구 질문, 연구의 목표, 한계를 다루었다.

제 2 장에서는 칼빈의 인간론에 영향을 준 역사적인 배경을 고찰해 보았다.

제 1 절은 교부시대에 교부들은 어떻게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다루었다. 로마의 클레멘트와 그리스의 학자들 이레니우스와 오리겐의 사상을 보았다. 서방 신학에서는 터툴리안과 키프ريان(Cyprianus)과 힐레리(Hilary), 암브로스(Ambrose)의 인간의 죄의 유전성과 원죄를 강조한 사상을 보았다. 이러한 서방의 사상은 어거스틴과 칼빈에게 인간을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제공하였다. 또 인간론에 대한 주요 논쟁이었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인간론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 스스로 구원과 회복의 길이 전혀 없는 무능하고 비참한 존재란 사실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제 2 절에서는 중세교회 시대로 대 그레고리(Gregory The Great; 540-604)와 스콜라 신학자들의 인간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인간론을 살펴보았다. 특히 스콜라 신학의 1기의 유명한 학자 안셀름과 2기의 토마스 아퀴나스, 3기의 스코투스과 옥캄의 인간론이 어떻게 칼빈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들의 상이점과 유사점을 보았다.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원의의 상실과 원죄, 신인협력구원론에 근거를 둔 인간이해도 살펴보았다.

제 3 절에서는 종교 개혁 시대로 루터, 츠빙글리, 칼빈에 이어지는 인간론을 살펴보았다.

제 3 장에서는 『기독교강요』 I-III권에 나타난 칼빈의 인간론을 살펴보았다. 그의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하여 제 1 절에서는 창조 당시의 인간을 다루었다. 칼빈은 인간이 원초적으로 순결성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의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였고, 의지의 자유를 소유하고 있었다.

제 2 절은 타락 한 후의 인간에 대해 칼빈의 견해를 보았다. 아담은 범죄 하여 창조 당시의 원상태가 부패하게 되었다고 했다. 칼빈은 이로 말미암아 자기 인식에 대하여 왜곡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과는 전인류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성을 부패하게 만든 것은 바로 원죄이다. 원죄로 본성이 부패한 인간은 노예 신분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예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부패한 인간, 원죄를 가진 인간은 본성으로부터 최악된 행동들만 저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요구되고 은총만이 인간을 살리는 길임을 확실하게 주장하였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이다.

제 3 절에서는 구속받은 후의 인간론을 다루어 보았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중생하고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에 기초한다고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순종은 구원주심에 감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세에 대한 명상을 하며 사는 존재가 된다.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보다는 내세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사는 자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을 등한히 하는 것은 아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을 품고 현세에 적극적인 자세로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얻는다고 했다. 그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무해하고 무익한 것들로부터의 자유이다. 이런 자유는 언제나 교회의 건덕을 중심으로 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했다. 양심의 자유와 국가의 관계를 설명하고 나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였다.

제 4 절에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간론을 다루었다. 아담의 원죄로 부패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으로 나아간다. 그 완전은 천국에서 가능해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선택받은 자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유기된 자들 즉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칼빈은 최후의 부활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부활에도 있다. 부활의 소망을 놓지 말고 간직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모해야 한다.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는 이들의 주장을 반격하고 육체도 부활한다는 성경의 견해를 주장한다. 부활할 때에 육체는 바로 현세에서 소유하였던 몸 그대로인 것이다. 이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부활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칼빈은 불신자들도 부활한다고 하여 이중 부활을 말했다.

제 2 절 연구결과

2005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의 복제는 거짓임을 밝혀졌다. 인간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생명을 복제하고 실험하는 노력들은 결국 인간에 대한 존엄을 파괴하는 비성경적인 인간론에 근거한 것이다.

힌델(K. Hindell)과 마텔린 심즈(Madelaine Simms)는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초기의 태아(embryo)와 전기의 태아(foetus)는 단순히 어머니의 신체의 일부이지 아직 인간

은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다.²⁴⁵⁾ 이처럼 자연주의적 유물론적 인간론의 견해들이 팽배하게 사회에 퍼져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함이 약화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적 인간론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중요하다는 점을 의심 없이 주장하고 믿어왔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들은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겪으면서 깨져버리고 말았다. 인간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고 악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대중매체의 영향력, 대량생산력, 관료주의, 과학적 기술공학의 발전으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낙태등과 같은 것을 화학물질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안락사나 유전공학들로 인해 인간의 삶과 생명은 그 고귀함과 존중함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뿐 아니라 인종차별, 인간 소외현상, 남녀차별의 문제, 권위에 대한 도전등은 이 시대의 인간론을 볼 수 있는 단면들이다. 관념론은 인간을 정신이며, 물질적 육체란 인간의 근본적 본성과 상관없는 생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극단주의적 물질주의는 인간은 오직 물질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신, 감정, 영적 삶은 이런 물질들의 부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물질주의적 인간관의 대표적 인물은 스키너(B. F. Skinner)이다. 그는 저서 『자유와 위엄을 넘어서』 (*Beyond Freedom and Dignity*)에서 인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포기한다. 인간의 행위를 결정짓는 것은 자율적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²⁴⁶⁾

그래서 관념론적 인간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영혼, 정신, 이성에만 관심을 가진다. 인간의 물질적 구조성의 실체를 부정한다. 육체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스키너와 같은 물질주의적 인간론은 정신적이고 영적 측면에 대해 무시를 한다. 그리고 다만 육체에만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살펴본 대로 칼빈의 인간론을 보면 이 두 관념론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바른 인간론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게 된다. 본 논문을 통해 얻은 결과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다. 성경에 기초하여 태초에 만들어진 인간과 타락 후 인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 영화 상태의 인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게 된다.

245) John R. W. Stott,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384.

246) A. A. Hoekema, 『개혁주의 인간론』, 11.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존재가 인간이다.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의 인격대로 지음 받아 지정의를 소유한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존재,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를 함부로 대하거나 살인하는 행위들, 실험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들은 금지되어야 한다.

둘째, 원죄의 전가가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다.

칼빈은 아담의 죄 즉 원죄가 그의 후손들인 인간 모두에게 전가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출생하게 된다. 선하게 태어나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 가운데 출생하여 그 형벌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원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리고 오염되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녀관계를 유지할 수도 성립할 수도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

셋째,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인간이다.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어느 한 부분도 멀쩡한 부분이나 정상적인 부분이 없다는 말이다. 영혼, 몸, 정신, 양심, 의지, 감정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로 인해 부패하고 오염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그래서 행동이나 생각이나 계획들 모두가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다.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칭찬을 받지도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마치 하나님인냥 높이 찬양하는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인간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려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이다.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칼빈은 여기에 대해 한 가지 답을 제시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본성이 회복된다. 타락하고 오염되어 뒤틀려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것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이시며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육신과 죽으심, 부활은 바로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며,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다섯째, 천국에서의 영화를 바라보는 인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인간은 성화의 상태에 있다. 즉 영화의 상태가 아니라 성화의 단계에 있으며, 영화를 바라보고 영화롭게 되어가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지만 계속하여 영화 즉 완전의 단계로 성장해 나간다. 죄의 습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다. 죄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제어하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갈등을 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본 논문이 발견한 것은 칼빈이 성경을 기초로 하여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칼빈의 연구를 통해서 정리된 인간론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더 다듬어지고 발전되어져야 할 것이다. 칼빈의 인간론은 성경적이며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교회의 교육에 인간론을 반드시 포함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제언

본 논문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성경이 제시한 인간론, 개혁주의 신학의 인간론, 교회사에 나타난 역사적인 인간 이해, 칼빈이 제시한 인간론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경적인 인간론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론에서 밝혔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인간론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 논문을 마무리 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경의 깊은 관심과 이해를 통한 인간론의 연구가 필요하다.

인간은 과학이나 의학이나 심리학, 철학을 통해 연구되어지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는 설사 어느 정도의 지식을 안다고 해도 편협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적은 지식도 오해되어지거나 왜곡 되어진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토대로 하여 연구되어진 인간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것이다. 칼빈의 인간론은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성경을 벗어나 인간의 사색과 유추, 실험을 통해 얻어진 인간의 지식은 부분적임을 알아야 한다. 칼빈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더욱더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인간론을 더 발전시키고 정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둘째, 생명윤리에 대한 문제에 성경적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

2006년 1월에 대통령과 정부는 배아복제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약속한다는 발표를 했다. 아직까지 인간론에 대한 유물주의적, 관념적 인간론이 지배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생명윤리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연구해야 한다. 성경에 기초하여 생명윤리의 분야에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속 사회가 이해하고 주장하는 인간관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처신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을 나라 전체, 국민 전체가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인간론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수주의 생명윤리에 대한 견해의 통보가 필요하다.

생명윤리에 대하여 진보주의들은 여러 운동과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생명윤리에 대해 진보주의자들보다는 관심을 덜 가진 것이 사실이다. 황우석 박사가 KNCC의 지도자들과 만난 것은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황우석 박사를 비판만 했다. 그를 만나 확실한 생각과 의견을 확인하는 작업에는 소홀히 한 것 같다. 물론 생명윤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보수주의 쪽에서도 생명윤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보주의에 비하

여 다소 소홀히 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보수주의가 가지고 있는 생명윤리에 대한 견해와 인간론에 대한 견해를 강력하게 필역할 필요가 있다. 사회와 과학계, 의학계 전반에 걸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시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회의 성경적인 인간론 교육의 제안을 해본다.

칼빈의 인간론을 보면서 느낀 것은 바로 교회가 앞장서서 성경적인 인간론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교육에 힘을 쓴 목회자이며 신학자였다. 그는 요리문답서를 만들어 교회의 교육에 힘을 썼다. 『기독교강요』도 이런 교육의 목적으로 쓰였으며, 그의 주석들 역시 그러한 목적으로 쓰였다. 교회 안에서 인간론을 교육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세미나 혹은 특강을 통해 일부에서만 교육되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혼, 낙태, 자살등 생명윤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교회는 이제 교회 밖에서 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론을 교육할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세속적인 인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 인간관을 가지도록 교육하는데 전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성경류 · 사전류>

BH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Novum Testamentum Graece (Nestle's 27th).

NASB.

NRSV.

『한글개역성경』.

『기독교대백과사전』.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4.

『동아새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5.

『디럭스바이블』, 2000.

『철학대사전』. 서울: 한국이데아, 1996.

박양조. 『성경성구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95.

<강해 · 주석류>

김의원. 『하늘과 땅, 그리고 족장들의 톨레돏』. 서울: 햇불, 2004.

권성수. 『요한계시록』. 서울: 햇불, 1999.

_____. 『로마서강해 I~II』. 서울: 햇불, 2000.

박윤선. 『성경주석: 창세기~계시록』. 서울: 영음사, 1996.

유재원. 『창세기 강해』. 서울: 민영사, 1990.

제자원. 『그랜드종합주석: 창세기~요한계시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6.

Barclay, W. 『성서주석: 마태복음~요한계시록』. 황장욱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3.

Barnes, A. 『성경주석: 마태복음~요한복음』. 정중은 역. 서울: 크리스찬서적, 1994.

Bruce, F. F. 『사도행전』. 이용복·장동민 역. 서울: 아가페, 1992.

- Bruce, F. F. 『히브리서』. 이장림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3.
 _____. 『로마서』. 권성수 역. 서울: 서울: CLC, 1995.
- Calvin, J. 『성경주해: Vol. 1~20』. 번역위 역. 서울: 성서원, 2000.
- Campbell, D. K 외 공저. 『갈라디아서~골로새서』. 정민영외 공역. 서울: 두란노, 1996.
- Geisler, N. L, 『골로새서』. 정민영 외 공역. 서울: 두란노, 1996.
- Gibson, John C. L. 『창세기주석』. 이기문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5.
- Keil, C. F. & Delitzsch, F. 『창세기주석』.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8.
- Ladd, G. E. 『요한계시록』. 이남중 역. 서울: 크리스찬서적, 1991.
- Leupold, H. C. 『창세기 주석(상)』. 최종대 역. 서울: 크리스찬서적, 2000.
- Morris, Leon. 『요한계시록』. 김근수 역. 서울: CLC, 1993.
- Ross, Allen P. 『창세기』. 강성렬 역. 서울: 두란노, 1995.
 _____. 『시편』. 전광규 역. 서울: 두란노, 1996.

<국내도서>

- 김길성. 『개혁교회론』. 서울: 총신대신학대학원, 2006.
 _____. 『개혁신앙과 교회』.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1.
 _____. 『개혁주의 종말론』. 서울: 총신대신학대학원, 2006.
- 김상훈. 『요한문헌』. 서울: 총신대신학대학원, 2005.
 _____. 『해석 메뉴얼』. 서울: 그리심, 2003.
- 김의원. 『구약신학과 역사』. 서울: 총신대신학대학원, 2004.
-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 성광문화사, 1996.
 _____. 『현대신학개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6.
- 김호식. 『기독교 철학 변증론』. 서울: CLC, 2001.
- 박건택. 『근현대교회사』. 서울: 총신대신학대학원, 2005.
 _____. 『종교개혁사』. 서울: 총신대신학대학원, 2005.
 _____. 『종교개혁사상선집』. 서울: 솔로몬, 2005.
- 박아론. 『기독교의 변증』. 서울: CLC, 1994.
 _____. 『현대신학연구』. 서울: CLC, 1996.

- 박용규. 『초대교회사』. 서울: 총신대출판부, 2001.
- 박형룡. 『교의신학 III』. 서울: 한국기독교교연구원, 1977.
- 박형룡. 『교의신학 VI』. 서울: 한국기독교교연구원, 1977.
- _____. 『교의신학 VII』. 서울: 한국기독교교연구원, 1977.
- 서철원. 『하나님의 구속경륜』.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9.
- _____. 『신학서론』. 서울: 총신대출판부, 2003.
- _____. 『기독교론』. 서울: 총신대출판부, 2005.
-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5.
- 심창섭·박상봉. 『교회사가이드』. 서울: 아가페, 1999.
-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CUP, 2001.
- 이상원. 『Francis Schaeffer의 기독교 세계관과 윤리』. 서울: 살림, 2003.
- 최홍석. 『교회론』. 서울: 솔로몬, 2001.
- _____. 『인간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5.
- 하문호. 『교의신학 인간론』. 서울: 그리심, 2002.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6.

<국외도서>

- Calvin, J.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2 Vol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2000.
- _____. *Old Testament Commentaries*. 30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98.
- _____. *New Testament Commentaries*. 12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98.
- Berkhof, L. *System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9.
- _____.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Grand Rapids: Eerdmans, 1998.
- _____.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8.
- Hoekema, A.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Eerdmans, 1999.

<번역서>

- Berkhof, L. 『기독교 교리사』. 김진홍·김정덕 공역. 서울: 세종문화사, 1995.
- _____. 『조직신학(상하)』. 권수경·이상원 공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 _____. 『별코프 신학 개론』. 송중섭 역. 서울: 요나출판사, 1995.
- Bromiley, G. W. 『역사신학』. 서원모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 Cairns, E. E. 『세계교회사』. 엄성욱 역. 서울: 은성, 2001.
- Calvin, J. 『기독교강요』(상·중·하). 김종흡 외 3인 공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6.
- Gonzalez, Justo L. 『중세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99.
- Hagglund, B. 『신학사』. 박희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6.
- Havinck, H. 『하나님의 큰 일』. 김영규 역. 서울: CLC, 1999.
- Hodge, A. A.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해설』. 김종흡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 _____. 『하지조직신학: 인간론』.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2.
- Hodge, C. 『조직신학 I』. 김귀탁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 Hoekema, A. A.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 역. 서울: CLC, 1999.
- Lloyd-Jones, D. M.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강철성 역. 서울: CLC, 2000.
- Murray, John. 『조직신학 I~II』.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Robertson, O. Palmer.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김의원 역. 서울: CLC, 2002.
- Shelley, Bruce L.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박희석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 Sire, James W. 『기독교세계관과 현대 사상』. 김현수 역. 서울: IVP, 2002.
- Stott, John R. W.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 서울: CLC, 1997.
- Tony Lane. 『기독교 사상사』. 김응국 역. 서울: 나침반, 1997.
- Van Til, Cornelius. 『개혁주의 신학 서론』. 이승구 역. 서울: CLC, 1999.
- Wendel, Francois. 『칼빈의 신학서론』.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협의회, 1988.

<논문 및 정기 간행물>

김동호. “원죄를 통해 본 기독교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인간이해.” 장로회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안중기. “유교 인간론에 관한 연구-기독교 인간론과 비교하여.” 서울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김정우. “신학지남에 나타난 총신신학의 회고와 전망(II).” 『신학지남』. 제268호 (2001년 가을호): 7-44.

서철원. “줄기세포 배양은 성경적으로 허용될 일인가.” 『신학지남』. 제284호 (2005년 가을호): 4-6.

_____. “영혼의 존재시작점과 배아줄기세포 배양문제.” 『신학지남』. 제285호 (2005년 겨울호): 9-15.

유재원. “목회자 양성과 총신의 후원 대책의 필요성” 『신학지남』. 제275호(2003년 여름호): 4-8.

http://calvinist.com.ne.kr/theology_f.htm.

<http://reformedchurch.com.ne.kr/study/seminar/human/calvin.htm>.

<http://theologia.co.kr/cgi-bin/spboard/board>.

http://www.pillar.or.kr/Book/Book_wesley.html.

논문초록

현대는 인본주의, 유물주의,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한다. 안락사, 낙태, 자살, 다양한 형태의 폭력, 인간복제 등의 문제들이 만연한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 신자들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인간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고 이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인간론의 문제를 어떻게 개혁하고 조정해 나가야 하는지 성경에 근거하여 칼빈이 제시하는 인간론을 살펴보았다.

1장에서는 서론으로 교회가 칼빈이 말하는 인간론을 이해해야 하는지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질문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2장에서는 칼빈의 인간론에 영향을 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았다. 로마의 클레멘트에서 어거스틴까지의 교부시대의 인간론, 대 그레고리와 안셀름과 토마스, 스코투스과 옥캄등의 스콜라 신학자들, 로마 가톨릭교회의 인간론을 보았다. 종교개혁시대에서는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터, 츠빙글리의 인간에 대한 이해들이 어떻게 칼빈에게 전해졌고, 어떻게 변형되고, 거절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칼빈의 저작인 『기독교강요』 I-III권에 나타난 칼빈의 인간론을 살펴보았다. 창조 당시의 인간을 칼빈은 원초적으로 순결한 존재로 보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며,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제시한다. 타락 후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상태가 부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기 인식의 왜곡 현상과 전인류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노예 신분에 놓이게 되고, 원죄를 가진 인간은 죄악만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불변하는 것이다. 다만 전적으로 부패하고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이 구원받는 길,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중생한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으며, 바로 섬길 수 있다. 또 내세를 소망하며 살아가며, 세상을 감사함으로 힘있게 살아간다.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또한 중생한 인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으로 나간다. 그곳에서 중생하고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 하에 부패하고 타락한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인 유기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의 불

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칼빈은 최후에 있을 인간의 부활도 강조한다. 이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4장에서 밝히는 논문의 연구결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자체로 존귀하며,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해진 인간은 천국의 영화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러한 칼빈의 인간론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생명윤리와 함께 성경적인 인간론을 교육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